



[산업]  
한진 직원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  
06



Economy

코스피 2079.04 (-83.80)	코스닥 639.29 (-28.70)
금리 (연평균) 1.14 (-0.04)	환율 (원/달러) 1220.20 (+11.00)(24일)

# 벤처지원 억지정책 부실 CB-특례상장 라임사태 단초 제공

## W 코스닥 흑역사

### (上) 정부정책의 허점

600대 고전중인 코스닥 지수  
정부 벤처펀드로 유동성 공급  
자금여력 없는 기업 상환 위기

한 때 지수 1000을 향해 달려가던 코스닥 지수는 2년 새 600대로 급락해 고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 회계 감사 강화, 감사 선임 등 3중 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총 3회 시리즈로 코스닥의 위기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력을 잃은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에도 수익률이 저조하다. 지수 상승과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도리어 위기의 부메랑이 됐다.

24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0포인트(4.30%) 급락한 639.29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4.6% 하락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6.9% 하락했다.

### ◆ 정책 상품의 실패

지난 2018년 코스피 지수는 900을 돌파하며 촉포를 터트렸다. 기업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기세를 몰아 코스피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로 구성된 KRX 300 지수가 탄생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많아지면 기관투자자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지수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지수의 역할을 미미하다. 하락장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당 지수는 오히려 출범 첫날 지수(1489.41)보다 13.9% 하락한 상태다.

또 KRX300 지수 출시 당시 향후 국민연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은 채택을 주저하고 있다. 주요 연기금 중 KRX300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도입한 곳은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두 곳 뿐이다.

(5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코로나 감염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코스피 2079.04 코스닥 639.29  
내수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 급락

코로나19 확산 공포감과 외국인 매도로 24일 주식시장은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닥지수는 4% 이상,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도 급락했다.

지난 주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생산 활동 위축으로 내수경제가 침체할 것이라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 기대감 대신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재난적 상황으로 번지며 세계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83.80포인트(-3.87%) 떨어진 2079.04에 거래를 마쳤다.

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7000억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77억원, 1929억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7823억여치를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이날 낙폭은 4.06% 떨어졌던 2008년 9월 1일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70포인트(-4.30%) 떨어진 639.29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급락폭은 증권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분간 증시의 출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 덕에 지난주 초반엔 글로벌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지역사회까지 감염이 번졌다”며 “지역사회까지 본격적으로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 폭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도 극에 달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9%에 장을 마쳤다. 5년물 금리는 3.1bp 내린 1.236%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가 지난 21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25%)를 밑돈 데 이어 5년물 금리도 장중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2100선 무너진 코스피

코스피가 83.8포인트(3.87%) 하락한 2,079.04로 장을 마감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220.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국가적 역량 총동원”

##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대구·경북 특별한 지원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의학 전문가 간담회로 확대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를 향해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정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정부는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황 우려를 언급하며 “한 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에 ‘총력적인 방역’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 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코로나 악재 속 주총시즌 개막

# 한진칼 경영권, 사외이사 물갈이 등 주목

## 오늘 미원화학 첫 주총 테이프 3월24일 305곳 ‘슈퍼 주총데이’

지난 주말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최악의 ‘주총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총이 대형 장소에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 이상 모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방역에 대한 부담과 함께 참석률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5일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주요 기업들의 주총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8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며 현대차(3월 19일), LG생활건강(3월 20일), SK텔레콤(3월 26일), 셀트

리온(3월 27일) 등이 예고돼 있다.

3월 24일에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9곳, 코스닥 상장사 266곳 등 305곳 상장사 주총이 집중돼 있어 3월말까지 주총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총이다.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3일까지로, 연임을 위해서는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 31.98%(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의결권 유효 지분)의 지분을 확보하고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한진칼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이 이번 주총에서 상정, 통과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주총에선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강화돼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됐다. 그간 장기 연임하던 사외이사들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18명이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달 주총 개최를 앞둔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올해 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며 삼성SDI의 경우 현직 사외이사 4명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오진위험, 법적책임 애매”

(의협)

# “만성질환자 한시적 조치”

(정부)

## ‘제한적 원격진료’ 정부-의협 충돌

의협 “환자 치료 지연, 전면거부”  
정부 “감염 안정되는 시기까지만  
의료기관 협조하에 허용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공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받게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난 사망 사례를 볼 때 기저질환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례적인 검진과 또 투약이 불가피한 분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이러한 조치를 허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환자라면 가족을 통한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4일 오전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신과병동 103명 감염, 5명 사망

###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국내 전체 확진자의 14.8% 달해  
의사 등 병원 관련 확진환자 1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정신병동의 폐쇄 공간에서 지내며 면적이 약해진 환자들을 덮치면서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내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모두 7명인데, 이 중에서 국내 첫 사망자를 포함해 5명이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있었던 환자들이다.

대남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신천지대구교회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진앙으로 떠올랐다.

청도대남병원 5층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는 지금까지 입원 환자 가운데 2명

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현재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3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확진자(763명)의 14.8%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 456명(59.8%) 다음으로 많다.

대남병원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폐쇄 병동 특성상 밀접한 접촉에 다 환기 부족 등 감염병에 취약한 열악한 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대남병원에서 지난 15일 전후로 입원환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났으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상태가 좋지 않은 장기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 부전으로 숨지는 환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입원환자들 사이에 상당 시간 유행했고 그러면서 일부는 중증으로 발전했지만, 제대로 급성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 위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감기증세’ 대구시민 2.8만명 진단검사

확진환자 231명 추가 총 833명  
대구 지역 확진자 487명 달해  
대국민 예방수칙 개정·배포

정부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도록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고, 감기증세를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확진자 161명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늘어났다. 허룻밤새 1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오후에 70명이 추가됐다. 하루만에 늘어난 환자는 231명에 달한다.

청도대남병원에서 두명의 사망자도 추가됐다. 55번째 환자(60세, 남성)와 286번째 환자(63세, 남성)가 사망하며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72명이 대구에서 발생으며, 경북 23명, 경기 12명, 경남 3명, 부산 14명, 광주 1명도 추가됐다. 서울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가 487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씻지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1층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다. /연합뉴스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전국 확산 막기 총력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선 방역당국은 정부가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 교인까지 합치면 총 3만7000명에 대한 검사가 2주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도 시행한다. 이제까지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458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교인 명단 9535명 중 증상이 있는 신도는 1250여명이다. 대구 이외 지역 신천지 교인도 파악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신천지 쪽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 시기 대구를 방문해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교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며 “확진 환자가 나왔던 다른 지역의 신천지교회 교인의 인적사항도 요청한 상태로, 신천지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는지를 보고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내 확진환자 접촉자는 총 9681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 조치하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 음압 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입원환자들을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 병원 내 감염 차단 ‘국민안심병원’ 운영

보건부, 호흡기질환 환자 분리 진료  
감염 불안 덜고 환자·의료인 보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의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우선,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 “확진자 다녀갔다니 두려워... 공포의 쇼핑” 적막강산

## Q 르포 | 코로나19 확산에 초토화된 유통가 가보니

“코로나 전에는 고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백화점은 비교적 쇼핑을 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와 면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뚝 끊겼다. 음식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평소 주말보다는 다소 고객이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쇼핑하는 소비자들은 있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1층 화장품 매장 직원은 생각보다는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아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돼 지하 1층 식품관을 임시 휴점했다. 전날에는 오후 8시에 영업을 앞당겨 종료했으며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식품관 외 타구역 미방문, 확진자 방문과는 별도로 선행

확진자 방문한 백화점 발길 뚝 마스크 쓴 고객만 간간이 보여

면세점·대형마트는 더 한산 시민 “외식하기 꺼려져” 우려 강남 주말에도 유통인구 줄어 웨이팅하던 맛집도 파리만 행

된 소독 등 사전 방역 활동과 관련해 현장조사팀과 협의를 거쳐 방문 구역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식품관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정상영업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왔다는 김모(30)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온 김에 지하 식품관에서 식사도 하고 가려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해 놀랐다”며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면세점은 직원들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텅 빈 면세점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면세점 매장의 한 직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며



23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세계면세점.

/김민지 기자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마트 역시 한산한 모습으로 평소같은 북적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형마트는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줄을 서야 할 계산대는 한산했다. 22일 찾은 강남구 서초동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임지영(29)씨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가 있어 마트를 찾았다”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꺼려지다보니 사람들도 마트 방문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백화점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전 지점 평균 10%대 매출이 줄었다. 압구정점은 전년 동기보

다 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설 연휴 이후 첫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전 지점 평균 20% 매출이 떨어졌다. 특히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은 3일간 임시 휴업을 해 30%가량 급락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대략 매출 6~7%가 하락했다.

강남대로 인근은 유통인구가 많은 특성 덕분인지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 걱정”이라며 “원래는 웨이팅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회사에서 재직 중인 김모(29)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줄 알고 방심했었는데 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던 광고 이마트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니 무섭고 경각심이 생긴다”며 “강남도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외식하기도 꺼려지고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매출최악, 손님보다 직원 더 많아... 신천지 밍지만, 정부는 뭘 하는 지”

## Q 르포 | ‘발길 뚝’ 뷰티·패션 매장 가보니

“보시다시피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A 화장품 판매장 명동점 점장)

“신천지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어요. 정부는 5조 원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개봉동 B 헤어 스튜디오 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패션·뷰티 유통업계가 매출 하락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패션·뷰티 아이템이 사치재인 만큼 소비자의 대부분이 집 밖 외출을 삼가면서 최소한의 제품만을 소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패션뷰티업계 오프라인 매출 하락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명동 거리 판촉 직원 한숨 소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변화가는 오전 시간대임을 고려하더라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평소 북적이던 화장품 판매장 거리는 마스크를 낀 채 영업 활동하는 직원들만 눈에 들어왔다. 평소 마스크 팩을 1장만 나눠줬다면 2장은 기본, 3장까지 나눠주며 판촉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르게 직원을 스쳐 지나갔다.

A 화장품 판매장 명동점 점장은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명동은 주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인데,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뒤로 중국 손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시다시피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옷가게도 마찬가지였다. C 의류 브랜드

화장품 테스트 대신 테스트지 대체 방역하고 판촉물도 3배 늘려봤지만 구매는 커녕 구경도 안해 매출 절망

웃은 피팅 안하고 구매는 온라인서 오프라인 매장 “생계 걱정” 입 모아

드 명동점 점장은 “구경하는 손님이 현저히 줄었다. 보통은 매장을 구경하다가 옷을 입어본 뒤 계획보다 추가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기본 아이템의 사이즈만 확인하고 빠르게 매장을 나간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은 뒤 3일간 임시 휴점한 바 있다.

### ◆일부 지역은 생존 위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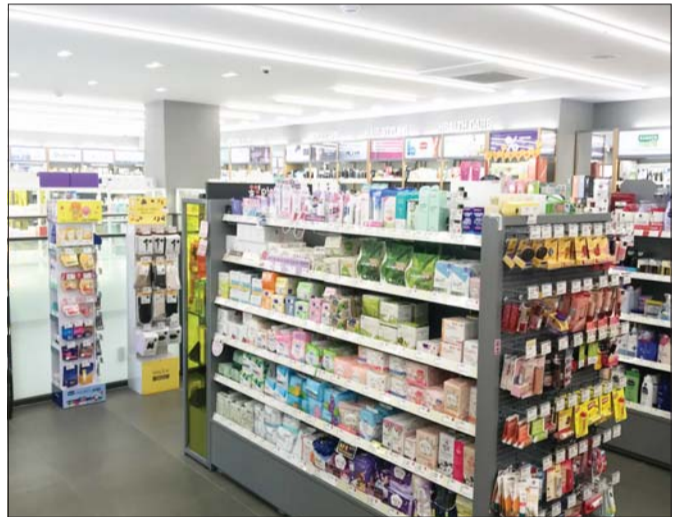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개봉역 인근 신천지 G 교회에는 폐쇄됐다는 안내 현수막과 손세정제가 설치돼 있었다.

G교회 상가 같은 층에 있는 B 헤어 스튜디오는 영업 중이었으나 텅 비어 있었다.

B 헤어 스튜디오 사장은 “손님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제로(0원)이죠. 평소 오전 10시에서 11시면 파마하는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방역을 끝냈지만 확진자 나온 상가에 누가 오겠어. 자기 건강한 거 맞냐고 확인하는 전화만 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B 헤어스튜디오가 텅 비어있다.



24일서울에 위치한 드러그스토어 매장에 고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조효정 기자

뜩 와”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안 그래도 남편은 쉬고 나 혼자 버는데 생계가 걱정이야”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D 코스메틱 브랜드 개봉점 점장은 “코로나19가 발생 초기에는 이 동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완전 위기죠”라며 “확진자가 나온 뒤 평소 매출의 10분의 2도 나오지 않아요”라고 털어놨다.

E 코스메틱 브랜드 개봉점 점장은 “본사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손님도 안전하니깐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고객들은 들어오는 게 더 꺼려진다고 하네요”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테스터도 하고 구경을 해야 매출이 오르는데. 아예 매장 자체를 들어오질 않아요. 얼굴에 직접 테스트 하지 않고 테스트지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적고. 이번 주는 평소 매출의 10분의

1 정도네요”라고 말했다.

### ◆패션·뷰티 소비자 온라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패션·뷰티 회사의 타격은 크지 않다.

브리티 홍보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이 주가 되다 보니 매출의 큰 변화는 따로 없다. 특히 중국 쪽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패션뷰티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F 코스메틱 브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단기간의 매출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스메틱 업계 오프라인 매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G 패션 브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으로 일부 이동하기는 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자사 브랜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다른 온라인 경쟁업체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 시급해

B 헤어 스튜디오 사장은 “신천지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어”라며 화를 냈다. 그는 “나라에서 5조 원을 풀었다. 돈이 부족하다고는 들었지만,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어. 대기업은 버티더라도 하지, 자영업자는 대책이 없거든”이라며 호소했다.

개봉동에 위치한 H 의류점 점장은 “방역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도 불안한걸요. 대기업은 영업하고 있다고 기사라도 나오지. 우리같이 작은 옷가게는 영업하는지도 몰라. 나라에서 금전적 지원은 못 해도 안전하다고 홍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현장 대신 유튜브... 코로나에 '비대면 선거운동' 확산

민주당, 대면접촉 선거 전면 중단  
통합당·정의당, 선거운동 자제령  
비대면 선거운동 유튜브로 진행

21대 총선이 50여 일 남은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선거 운동 풍토가 바뀌었다. 사람과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 특성상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들이 지난 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악수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에 '대면 접촉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부터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대면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낙연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는 22일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선거운동은 이 예비후보

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 캠프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대면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과 정의당도 각 예비후보에게 선거 운동 자제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24일) 통합당 주요 당직자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인사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주요 당직자 감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절차를 안내했다. 저 또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절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한편,

관련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제수 의원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부산 지역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냐"며 "시당 차원에서 방역 활동이나 확진자 진료와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구를 배현진 예비후보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지역에서 2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동네 심리가 바짝 움츠렸고, 지난주부터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접었다"며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주민들 염려가 큰 만큼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中 유학생 입국시작... 대학 "관리·보호 총력" "코로나로 신음하는 협력사와 상생"

매일 발열 체크·이동동선 파악  
교육부 휴학 권고에 재정타격 우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입국이 시작됐다. 대학들은 공항까지 가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픽업해 자율격리 기숙사로 이동시키고, 매일 유학생들의 발열과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유학생 관리·보호 방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 휴학을 권고함에 따라 이들이 대거 휴학에 나설 경우 대학의 재정 타격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개강을 1~2주씩 연기한 가운데, 입국을 원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개강 2주 이전에 입국해 자율격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대학은 개강일을 기존 3월 2일에서 9일이나 13일 등으로 1~2주 연기한 상태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7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이미 입국했고, 나머지 3만 8388명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입국 유학생에 대해 공항에서 격리장소인 학교 기숙사 등으로 이송하고, 학교 시설 외 거주하는 유학생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자 안내소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 1일 1회 발열과 상태 점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3330명 규모에 달하는 성균관대는 수원시 협조로 공항에서 유학생을 시정 버스에 태워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에 1인 1실 입주시켰다. 학교 기숙사 입주 인원은 전체 인원 중 약 10% 정도로 학교는 예상하고 있다. 학교 인근 원룸 등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생 10여명을 고용해 1인 1회 발열 체크와 현재 상태,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희대는 유학생들은 자율격리 기간과 학기 시작 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기숙사 입소토록 하고 있다. 양 캠퍼스 내 기숙사 건물 각 1개 동을 중국 학생 격리 공간으로 마련해 화장실이 딸린 1인1실을 배정하고 도시락과 생활필수품도 지원해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체온계도 비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교직원들은 하루 24시간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이달 28~29일, 한국외대는 27~29일 격리 대상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소시킬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LG전자, 코로나19사태 간담회  
마스크 공급·항공 운송비 등 지원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LG전자는 24일 경기 화성 유양디앤유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과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LG전자는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 19가 협력사 원재 수급과 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마스크 공급과 항공 운송비 지원 등 긴급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운영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는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이자 자금 규모를 종전 4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금 일정도 전년보다 4개월 빠른 이번달 중으로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협력사가 설비 투자와 부품 개발을 하는데 주력하고 경영 안정



LG전자 김태용 동반성장담당이 상생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LG전자는 생산 기지 '유티'를 준비하는 협력사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로 나갔던 협력사가 국내로 복귀를 결정하거나, 국내 생산 기지 비중을 더 높이기로 하는 경우다. 컨설팅은 물론이고 무이자 자금과 구매 물량 보장 등을 유인책으로 내놨다.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은 "협력사가 안정된 경영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라며 "협력사가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코로나19에 울고 웃는 산업계

### 일부 업종 긍정적... "실익 크지 않을 것"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계 대박기대  
"눈 앞 이익보다 장기적 타격 우려"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산업계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계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현지 LCD 패널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LCD 패널을 절반 이상 생산하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생산능력이 10~20% 떨어졌고, LCD 패널 가격도 10% 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졌다. LCD 패널 생산 공장을 계속 가동 중인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게된 셈이다.

가전 업계도 실제 수요 감소는 크지 않다는 전언이다. 전년 대비 일부 감소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반도체를 향한 기대도 나온다. 공급

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논리다. '중국 반도체 굴기'도 힘을 내지 못하게 됐다며 상대적 호재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근시안적인 해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장 보이는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반도체는 수요 감소가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자 제품 생산량을 크게 줄인 때문이다. 글로벌 서버 시장 성장 전망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인천 사업장 폐쇄... 직원 임시격리

연구원 중 한명, 확진자 가족 확인  
국내 5대 대기업 중 3곳 비상 사태

LG전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사업장에서 또다시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LG전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사업장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임시 격리 조치했다. 한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으로 확인되면서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도 지난 주말 직원 3명이 확진자 택시를 타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23명을 추가 격리 조치하고 사무실을 방역했다.

국내 5대 대기업 중 3개가 코로나19

로 비상 사태를 겪은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을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했고, SK하이닉스는 인천사업장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일부 건물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다행히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생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LG전자는 VS(전장) 연구 시설인 데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 재택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폐쇄 사업장이 연구 시설인데다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의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는 예상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특례상장 바이오, 버블 주의보

>> 1면 '벤처지원 억지정책...'서 계속

코스닥벤처펀드, 시장 부실의 단초 바이오, 무형자산 인식논란으로 균열 특례상장서 정책 폭탄 우려 솔솔

뒤이어 나온 정책상품은 '코스닥 벤처펀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식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해당 펀드는 출시 8일(영업일 기준)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가도를 달렸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코스닥 기업의 CB를 찾아다니기 바빴다. 0%대 금리의 CB도 불티나게 팔렸다.

결과적으로 당시 발행한 CB는 코스닥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됐다.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가는 하락하니 기관투자자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 ◆ IT버블에 이은 바이오 버블

코스닥 지수를 900까지 끌어올린 주역인 바이오 업종은 현재 지수를 끌어 내리는 주범이 됐다. 한 때 바이오 기업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수익 비율(PER)은 200배까지도 치솟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시장의 견제는 없었다.

과도한 주가 상승에 증권가 리서치센터는 보고서 작성을 포기했다. 현재 주가는 어떤 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거품"을 지적한 애널리스트는 이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주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바이오 버블은 무형자산 인식논란

으로 균열을 보였다. 당시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모두 자산으로 처리해 이익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 오스코텍, 티슈진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규모 자산을 부채로 처리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정책 폭탄은 '특례상장'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평가 기준을 낮췄다. 또 소부장 펀드 활성화로 관련 기업들의 공급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공모가 보다 하락했다"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은 도리어 코스닥 시장 신뢰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신한銀 의료비 돌려받기 '더 빠르고 쉽게'

병원서 증빙서류없이 실손보험 청구

신한은행은 지안넷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뱅킹 쏘(SOL)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의료비 돌려받기)'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쏘에서 8개보험사(삼성화재·NH농협손보·KB손보·흥국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앙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외 전국 26여개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주요 보험사와 병원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휴 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증빙 서류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보험사는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를 차단



/신한은행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고객이 증빙 서류 발급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쏘는 다양한 독자적 생활금융서비스를 발굴 및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4000억 금융지원



'착한임대운동' 건물주에 금리 우대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 출연을 통한 3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이를 재원으로 3000억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보증기관에 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역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현장실사 대행업무를 현재 9개 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전 소상공인 중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환 연장과 여신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한다. 중국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했다.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과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헤지자산, 코로나19에 컨틴전시 플랜 NH헤지자산운용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된 '비즈니스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업무 공간에서 최소 필수 인원이 상근한다고 24일 밝혔다. /NH헤지자산운용

## '신한퓨처스랩' 연 2회 선발... 유니콘기업 발굴

신한금융, 스타트업 36개사 선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대기업과 협력 국내 2개·해외 1개사 별도 선발

신한금융그룹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6기 스타트업 36개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연간 1회로 진행하던 스타트업 선발을 상·하반기로 늘려 차기 유니콘기업 발굴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6기 모집에는 80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내부문 22개사, 글로벌 진출부문 14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먼저 국내부문에서는 구독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의 월 정기 구독결제 해지, 가입을 관리해주는 '왓ساب(Whatsu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지와 상권을 분석해주는 '오픈업' ▲지역주민 참여형 P2P '투트에너지'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심리상담 플랫폼 '아토머스' ▲클라우드 데브옵스자

동화 기술 제공하는 '인스랩' ▲온라인 취미생활 콘텐츠 플랫폼 '하비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B2B이모티콘을 개발하는 '플랫폼(베트남 진출)'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위한 올인원 모바일 솔루션 '스토어카메라(인도네시아 진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등 글로벌 현지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신한퓨처스랩 6기는 스타트업의 더 큰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 국내 2개사 및 해외 1개사를 별도 선발했다.

▲골목길·사유지 교통데이터를 수집하는 '알트레이'(현대자동차 그룹) ▲스마트 키오스크 통해 보험금 간편원스톱(one-stop) 청구하는 '이브이케어'(LG유플러스) ▲코딩교육 및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땃쟁이사자처럼'(GS홈쇼핑) 등 3개기업은 대기업 파트너사와 공동육성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신한퓨처스랩은 지난 5기까지 총 136개사를 육성했으며, 현재까지 약 170억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한퓨처스랩을 출범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까지 도울 예정이다.

신한퓨처스랩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선발기업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웰컴데이 행사를 취소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6기 스타트업을 직접 만나 축하하지 못하는 대신 선발기업에게 신한퓨처스랩의 히스토리와 축하메시지를 담은 깜짝 영상메시지를 보내며 신한퓨처스랩 선발기업에 대한 그룹의 높은 관심을 전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銀, 시니어·외국인 돕는 스마트 ARS

하나은행은 음성 ARS 안내와 모바일 화면을 결합해 시니어와 외국인 손님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AR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ARS 서비스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간결한 메뉴 구성을 통해 보고 들으며 송금·거래내역 조회·환율조회·해외송금거래 등을 할 수 있어 음성 ARS에서 멘트를 끝까지 듣고 눌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앱 이용이 어려운 시니어, 외국인 손님이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 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몽골어·미얀마어·영어·중국어 등 7개국어 문자 및 음성을 지원하고 최근 이용한 거래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현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스마트 ARS는 시니어 손님이 모바일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 문자와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금융 거래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 대형항공-LCC, 서로 벤치마킹... 가격·서비스 역전도

## 변화하는 항공업계

(中) 허물어지는 경계

대형항공사, 일등석 없애거나 줄여  
비즈니스 스위트 도입해 수익 개선

LCC, 중거리까지 하늘길 넓혀  
넓은 좌석·무료 기내식 등 운영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



제주항공 항공기.

생존마저 위협받는 '비상상황' 앞에 FSC-LCC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시장 공략에 나서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내국인의 출국 규모 등 전체 수요마저 둔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보이콧 재팬·보잉 이슈 등까지 겹치며 국내 항공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맞았다. 이미 지난해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적자전환을 면치 못했다. 결국 항공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이에 FSC와 LCC 간 명확했던 경계는 점차 흐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대부분이 지난해 적자전환했다. 국내 최

대 LCC인 제주항공도 결국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1조3840억원, 영업손실 -329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41억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 12조3000억원, 영업이익 290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4% 감소한 수치로, 어려운 업황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항공업계가 지난해 적자전환한 배경으로는 보이콧 재팬·보잉 이슈 등 대외 변수가 꼽힌다. 지난해 7월 이후 본격화된 일본 관련 제품·여행 등에 대한 보이

콧 움직임은 항공업계 전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실제 일본으로 출국한 한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2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6% 줄었다. 이와 함께 보잉 737맥스의 도입까지 중단돼 저비용항공사들은 단거리 일본 노선 운항 중단에 중거리 지역 취항도 잠정중단하면서 타격이 커졌다.

생존마저 어려워지자 FSC와 LCC는 각각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로서 전통적인 전략에 유념하지 않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형항공사는 고급서비스 전략을 버리고 LCC의 전략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일등석

노선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일등석을 없애는 대신 저렴한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LCC의 주 전략인 앞줄·비상구 좌석 등 선호 좌석의 유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는 기존 단거리 위주에서 중거리까지 운항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티웨이항공은 중형항공기 도입을 통해 호주·중앙아시아·하와이 등 중거리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에어서울 등 일부는 이미 단거리 주력 기종을 조정해, 캄보디아 씨엠랩 등 중거리 지역에 취항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특성인 '모노클래스' 대

신 좌석을 구분해 운영하는 LCC도 있다. 제주항공의 '뉴 클래스'가 대표적이다. 제주항공은 넓은 좌석·무료 기내식 등을 바탕으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 대부분 LCC는 전체 좌석 등급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모노 클래스'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업황이 어려워지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FSC의 주 전략인 '고급화'도 서슴치 않은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LCC는 기내식·물 등의 제공이 없는 '노프릴 서비스'다. 이밖에 중단거리 노선만 취항하는 등 그런 특징이 있어 초기에 (FSC와) 구분이 명확했다"며 "그런데 최근 FSC는 단거리 시장을 뺏기고, LCC는 단거리가 레드오션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FSC는 이에 대한 방어로 가격을 낮추고 LCC는 좌석을 구분 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을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 값이 차이가 안 난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일반석과 제주항공의 프리미엄 좌석 비용은 오히려 제주항공이 더 비싸다"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335@metroseoul.co.kr

## 한진 직원,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나서

사내 게시판에 매수 독려 글 올라와  
"IMF때 처럼 주식 매수해 보탬 되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진그룹 직원들이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에 나섰다.

24일 세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 사내 익명게시판 '소통광장'에 '나도주주다'라는 작성자가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우호지분과 3자 연합의 지분 비율이 38.26% 대 37.08%"라며 "적당히 차익이나 챙겨서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는 투기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작성자는 "오로지 차익 실현이 목적인 투기 세력, 유류 자금 활용처를 찾던 건설사, 상속세도 못 낼 형편이었던 전 임원. 이들의 공통분모는 그저 돈, 돈일

뿐"이라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회사에 오면 돈이 된다면 사람 자르고 투자 줄이고 미래 준비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직원들도 한진칼 주식을 단 10주씩이라도 사서 보탬이 되자"며 "우리 국민이 IMF 당시에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 구하기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직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한진칼 주식 사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한 직원은 "철학도 명분도 없는 그들에게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다"며 동참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직원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 아합세력이 우리의 터전을 뒤흔들려는 작태를 눈 뜨고 당할 수는 없다"며 공감했다.

이미 한진그룹 내부 분위기는 조원태 회장 지지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는 '땅

콩회향'으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반감도 한 몫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항공 노조는 "3자 동맹은 허울 좋은 허수아비 전문경영인을 내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는 투기 자본과 아직 자숙하며 깊이 반성해야 마땅한 조 전 부사장의 탐욕의 결합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17일 대한항공 노조와 한진노조, 한국공항 노조 등 한진그룹 노조 3곳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3자 연합을 비난하며 조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1일에는 한진그룹 내에서 상무 이상의 임원을 지내고 퇴직한 500여명으로 구성된 전직임원회도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전문경영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수지 기자

## 코로나19 여파없다... '갤Z플립' 완판 행진

美·유럽·중동 등서 품질  
미션 8분 만에 물량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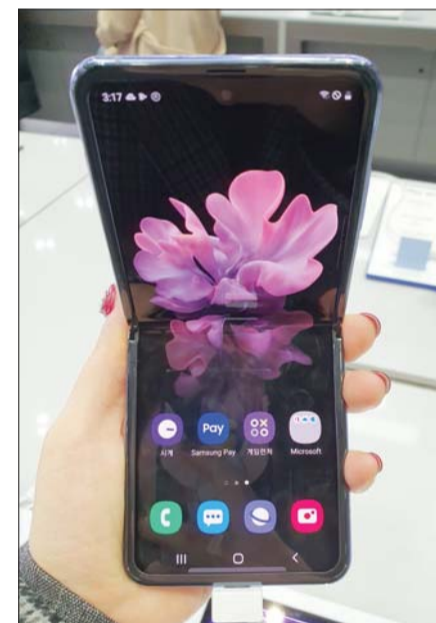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조용히 순항하고 있다. 디자인과 사용성에 대해 국내외 호평이 이어지고,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은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은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 출시 국가에서 완전 판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갤럭시Z플립 판매가 시작된 당일 오전 삼성전자 미국 웹사이트에서 자급제 모델이 품절됐고, 싱가포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1시간 만에 초도물량이 다 팔렸다.

지난 21일 중국에서 우수 고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갤럭시Z플립 선착순 판매에서는 행사 시작 8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기도 했다. 출고가 165만원으로 기존 출시된 폴더블 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과 사용감이 높다는 게 소비자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자급제 모델 판매를 시작한 지난 14일 조기에 소진됐고,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일부 판매점에서도 갤럭시Z플립이 판매 30분 만에 완판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미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제품이 한정된 만큼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진행된 온라인 판매에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대거 몰리며 2시간 여 만에 전량 소진됐다. 구매자들의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 오류가 발생해 구입하지



갤럭시Z플립의 화면을 접은 모습. /구서윤 기자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추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미정이다.

소수만 구매에 성공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출고가가 297만 원이지만 300만원, 400만원 대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300만원 대에 구매를 원하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출시 당시에도 출고가가 239만8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거래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장 폐쇄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직원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사업장이 일시 폐쇄됐고 24일 오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이곳은 삼성전자가 국내 공급용 폴더블폰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겨울왕국2’ VOD 보고 디즈니랜드 떠나요”

LGU+ VOD 출시 기념 프로모션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U+tv'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주원형비디오(VOD) 콘텐츠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U+tv를 통해 '겨울왕국 2' VOD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일까지 약 10일간 누적 이용건수가 5만9000건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U+tv내 '겨울왕국 2' VOD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28일까지 VOD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5만원 상당의 대형 아렌텔 캐슬 플레이세트(15명), 60cm 크기의 대형 올라프 인형(400명)을 증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내달 25일까지 VOD 구매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4인 가족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여행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선정된 고



어린이 방문객이 U+tv 아이들나라 체험관에 마련된 '겨울왕국 2'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객은 5박 7일 동안 항공권, 숙박시설, 교통편, 식사, 디즈니랜드 투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 절세와 연금을 잇다 우리은행 IRP가 있다

##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까지 우리은행 IRP



**우리은행 IRP**

· 연 7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 공제

-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 가능

-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 합산 1,800만원 한도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개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라며 과거의 운용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IRP는 개별 운용상품의 약관 내용을 적용하므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세부내용은 개별 상품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의 만기 이전 중도해지이율 적용 등) ▶ 상기 내용은 2019.12.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바랍니다. ▶ 그밖에 상세내용은 가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전용고객센터(1599-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12.30 준법감사인-2704 심의필(유효기간: 2020.12.31)



## 기아·삼성 신형SUV 고공행진

## 성능 甲 쏘렌토... 가격 매력 XM3

기아차 국내 첫 하이브리드 SUV  
르노삼성 소형보다 가격 더 저렴

국내자동차시장에서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사전계약에 돌입한 신형 쏘렌토와 XM3의 인기가 예상롭지 않다. 기아차는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고 르노삼성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마음 잡기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4세대 쏘렌토는 지난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8000여대가 예약되며 더 뉴 그랜저(1만7294대)의 인기를 넘어섰다. 특히 사전계약의 약 70%는 국산 첫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됐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SUV 모델은 도요타 '라브4'와 렉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서스 'RX 하이브리드' 모델 등 일본 브랜드가 유일했다. 그만큼 국산 모델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대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하루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했지만 소비자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르노삼성자동차는 오

랜만에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르노삼성이 3월 출시를 앞둔 쿠페형 SUV 'XM3'가 사전계약 3일 만에 2500대를 넘어서며 흥행몰이에 나선 것. 지난 21일부터 전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XM3는 계약 첫날 1000대를 넘어섰으며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2500대를 넘어서는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특히 XM3의 인기는 가격적인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 XM3 가격은 1795만~2695만원으로 주요 소형 SUV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파워트레인도 TCe260(1.3가솔린 터보)과 1.6GTe(1.6 가솔린) 엔진 2종으로 출시된다.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TCe260'에는 게트락 7단 습식 EDC 변속기(DCT)가, 1.6GTe 엔진에는 엑스트로니 무단변속기(CVT)가 각각 조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 XM3.

## 11년만에 현장... 쌍용차 해고자 46명, 5월 복귀

## 2009년 대규모 해고 사태

4차례 상생발전위 거쳐 합의  
2달간 업무교육, 7월 현장 배치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해고 사태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 중 마지막 남은 46명이 오는 5월 1일 11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전원 복직 후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유급 휴직 중인 해고 복직자 46명을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복직 중단 및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 후 12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쇄신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복직된 해고자들 역시 이에 맞춰 유급 휴직(통상 임금의 70% 지급)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이러한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노·노·사·정 4자 대표(쌍용차, 쌍용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 복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첫 상생

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차례의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협의해 왔다.

4차례의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쳐 노사가 최종 합의 함에 따라 유급 휴직자 46명은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되고 2달간의 OJT(직무교육)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된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퓨리케어, 극초미세먼지 '99.999%' 제거

KCL 규격에 따라 먼지 제거율 측정

LG전자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가 극초미세먼지 제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퓨리케어의 미세먼지 제거 능력 시험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CL은 한국 공기청정협회 규격에 따라 30㎡ 실험실에서 0.01마이크로 크기의 먼지 제거율을 측정하고, 11분만에 99.999% 제거됐음을 확인했다.

LG전자는 이번 시험이 필터 자체에 대한 일반적 시험이 아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LG전자는 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 성능을 다양한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입증한 바 있다.

호흡기 염증지표와 혈액내 염증지표를 내려 혈관과 심장질환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개선 및 투약 횟수 감소 결과도 확인했다.

/김재용 기자 juk@



카카오 여민수·조수용(왼쪽부터) 공동대표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재선임  
다음 합병후 첫 임기연장 CEO

연임 가장 큰 이유 재임기간 실적개선  
카카오특수 이익창출 구조 자리 잡아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가 뛰어난 경영 실적에 힘입어 포털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2018년 3월 취임한 두 공동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임은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확정된다.

카카오의 대표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이다. 합병으로 출범한 다음카카오의 첫 수장인 이석우·최세훈 공동대표와 그 뒤를 이은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모두 단임으로 물러났다.

두 공동대표 연임의 가장 큰 이유는 재임기간 회사 경영 실적 개선이 꼽힌다. 2017년에 연 2조원에 못 미치던 카카오의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2000억

원을 돌파하며 2년 전보다 25%가량 증가했다.

주력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콘텐츠·모빌리티 등 새로 벌이는 사업에서도 수익 모델이 생겨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졌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카톡 대화 목록 내 광고인 '톡보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하루 평균 5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해 6498억원을 기록했던 카톡 관련 사업 매출은 올해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2016년 8월 광고 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플랫폼 등을 주도했다. 조수용 공동대표는 2016년 12월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입사해 카카오뱅크·카카오T·카카오미니 등 브랜드를 선보였다. 두 공동대표에 다시 한번 신임을 보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이번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로나 확산에 '럭스틸 바이오' 수출 급증

(향균 컬러강판)

동국제강 세균 민감한 공간서 사용  
특수 첨가제 이용 살균·향균 극대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운데, 동국제강이 2018년 선제적으로 개발 완료 후 판매를 확대 중인 향균 컬러강판 '럭스틸 바이오'가 주목 받고 있다.

럭스틸 바이오는 특수 금속 세라믹 향균제 및 특수 첨가제를 이용하여 살균효과 및 향균효과를 극대화한 컬러강판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서식을 억제한다. 생활환경균인 0-157대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에 대한 향균성뿐만 아니라, 항곰팡이, 청정기능(탈취)까지 갖춘 프리미엄 향균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반영구적인 살균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럭스틸 바이오'는 세계 1위 향균 솔루션 업체인 마이크로밴(Microban)에서 인증 받은 '바이오 마이크로밴'과 국내 향균 인증기관 FITI에서 인증 받은 '바이오 프리미엄' 등 2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제강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향균 솔루션 업체인 마이크로밴과



동국제강 럭스틸 바이오 강판.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국제강의 컬러강판에만 마이크로밴 향균 첨가물 사용이 가능하다.

럭스틸 바이오는 수술실, 제약회사, 의료용 냉장고, 요양병원, 식품공장, 반도체 공장, 쇼케이스, 업소용 냉장고, 식품운반 차량 등 생활과 밀접하거나 세균에 민감한 공간의 내외장재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태국, 중남미, 호주 등 열대 기후이거나, 습기에 취약한 지역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공업 표준 규격인 JIS를 통과하여 위생관념이 철저한 일본에도 수출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준비한다. 반포 주공1단지 일대. /연합뉴스

# ‘반포 3주구’의 재결투

## HDC 시공권 반납... 오늘 현장설명회 대형건설사 총출동, 자존심 건 입찰전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준비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현장설명회 보증금을 납부한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24일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정비사업은 서초구 1109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를 짓는 것으로, 공사 규모는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주에 현장설명회 보증금 10억원을 납부하며 선전포고에 나섰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도 수주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포3주구는 시공사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동시에 서울시도 시공사 선정의 투

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반포3주구를 선정한 상황이라서 어떤 방식의 수주전을 전개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때에는 입찰 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입찰보증금은 공사 규모의 10%인 800억원이다. 대개 입찰 보증금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포3주구는 이 가운데 현금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보증금으로 받기로 했다. 최종 입찰을 위해선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9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600억원 등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반포3주구는 지난 13일 대의위원회의를 열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서 마감은 4월 10일이다.

한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대의위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방법 의결의 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현재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 건설사는 롯데건설이 유일하다. 사실상 롯데건설과 단독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입찰이 무산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 방식을 확정된 조합은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조합원 총회에서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갈현1구역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의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총 41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 외에 현대건설, GS건설이 수주전에 나서 각축을 벌였다. 롯데건설은 이곳 단지명으로 ‘북한산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중도금을 받지 않고 총 공사비를 100억원 가량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저점매수 아직 유효? 내달 초 변곡점 예상

## 한국 수출입지표 주목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소비 활동이 위축되며 국내 1분기 경기지표가 부진할 것이 유력함에 따라 매수 기회를 눈여겨 보고 있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기가 반등할 시점에 앞서 저가 매수 기회냐는 물음에는 분석이 엇갈린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뚜렷하면 서도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든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다.

변곡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와 한국 2월 수출입지표, 미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3가지를 중요 변곡점으로 꼽았다. 그는 “실물 경제지표 중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수출입지표”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시 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여당은 정부에 추경 긴급 편성 요청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추경이 긴급 편성하는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에 추경 긴급 편성 계획이 편성될 것이 유력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추경이 2분기에 집행될 공산이 크다. 2분기 중국 경기부양책 역시 실시될 가능성이 커 국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직 저점매수 기회는 유효

하다고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국들의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부양이 강해져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 때문에 기업들이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겪더라도 결국 자산가격이 오를 수 있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는 얘기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경민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단기 충격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 확대의 기회”라며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고 추천했다. 그는 “현 사태가 끝나면 글로벌 경제지표들의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분기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과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했다.

반대 견해도 있다. 재난 단계로 접어든 전염병의 불확실성이 변곡점마저 물어버렸다는 분석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염병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젠 단순히 경기 확장책만으로 시장의 안정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증시가 반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반등할 수 있는 요소나 매수의 시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성장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본격적인 반등은 요원할 것”이라며 “IT(정보기술)과 자동차, 바이오 대형주를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라”고 권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초역세권 분양 예정 단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치	단지명	가구수(실)	전용면적	지하철역
서초구 양재동	서밋파크	120	19~59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주상복합 998 오피스텔 99	39~59	2·3호선 을지로입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오피스텔	486	44~47	1호선·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자이	2,840	49~97	6호선 돌곶이역

# 서울 초역세권 분양단지 주목

## 양재동 ‘서밋파크’ 120실 등 분양

서울에서 지하철역에 접한 초역세권 단지들이 속속 분양된다. 역세권 단지는 출·퇴근 등이 쉽고 교통 체증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다. 역 주변으로 상업시설도 발달돼 있다. 또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환금성’이 뛰어나고 직장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이런 곳들로 서울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3대 도심에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초역세권 단지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위치한 ‘e편한세상신촌’ 83.93㎡는 지난해 2월 평균 매매가가 12억1000만원에서 지난 2월 14억4500만원을 기록, 1년 만에 2억3500만원이나 올랐다.

이 같은 초역세권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신행)은 오는 3월 서울 양재동 11-

4, 11~93 일대에서 ‘서밋파크’ 19~59㎡, 120실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의 더블역세권인 ‘양재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선다. 특히 양재역은 GTX-C노선(양주~수원)이 예정돼 있어 향후 C노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갖춰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서울 중구 입정동 189-1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39~59㎡, 99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899가구, 오피스텔 99실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일대에서 ‘청량리 오피스텔’ 44~47㎡, 486실을 분양한다. 단지는 바로 앞에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6번 출구가 위치해 있으며 경의중앙선, 분당선 연장선, KTX 강릉선(서울~강릉) 등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LH 20.5조 공사·용역 발주

### 공사 창립 이래 최대규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의 공사·용역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 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LH는 토지조성 사업에서 4조3000억원, 주택사업에서 16조2000억원을 각각 발주한다. 토지조성사업 예상 면적은 22.6㎢로, 입주민 교통편의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 지구·38건) 포함됐다. 주택사업에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만 3000가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조8000억원, 지방권이 7조7000억원이다. 수도권에선 ▲서울 1조8000억원 ▲인천 4조 7000억원 ▲경기 6조1000억원을 발주한다. 지방에선 ▲대전·충남 7000억원 ▲세종 1조원 ▲부산·울산 2조원 ▲전북 1000억원 ▲경남 8000억원 등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토목·건축공사가 각각 2조7000억원, 13조8000억원으로 계획됐다. 토목·건축만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어 전기·통신공사 2조7000억원, 조경공사 5000억원 순이다.

/정연우 기자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 /SK건설

## SK건설,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 수주

SK건설은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288-1 일대에 지하2층~지상28층, 9개동 총 80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7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2월 입주예정이다. 총 도금액은 1622억원이다.

사업지는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 대전로와 우암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다. 또 KTX 대전역과 대전IC 등 광역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삼성초, 한

밭중, 보문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대전역 주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대전 유성구 도룡 SK뷰, 동구 신흥 SK뷰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해 대전 내 ‘SK뷰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대전 삼성동1구역은 대전역세권개발사업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SK건설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특정 금융거래정보법)

# 금소법·인뱅법·특금법 20대국회 문턱 넘을까

법사위, 내일 논의... 27일 본회의  
DLF·라임사태에 금소법 부각  
인뱅법엔 케이뱅크 운명 걸려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지만 최근 과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에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려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는 금소법과 인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관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다음날인 27일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 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판매제한 명령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DLF와 라임펀드에서 대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금소법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금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같이 묶어 처리하기로 한 인뱅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인뱅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금소법까지 같이 다음 법사위로 계류됐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과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대 의견을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매출 90% LG화학... GM과 공장설립 검토

## IPO 간담회

### 2차전지 공정장비 '나인테크'

#### 불량제품 검사장비 개발 돌입 내년 中 넘어美·유럽 개척나서

2차전지 훈풍을 등에 업고 나인테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나인테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연한 기업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IT(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달 3일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4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나인테크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전문기업이다. 2006년 설립돼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성장하다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 끝에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로 사업을 확대했다.

나인테크의 최대 거래처는 LG화학이다.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한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지리자동차와 50대 50의 지분투자를 통해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GM자동차와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나인테크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L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G화학의 요청에 따라 2차전지 불량 제품을 걸러내는 검사 장비 개발에 들어갔다.

특히 롤투롤(Roll to Roll) 방식의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에 힘을 쏟고 있다.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아우르는 롤투롤 방식의 기술 경쟁력은 확실한 경쟁우위 요소"라며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제품 확대를 통해 매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예상 매출액은 735억원에 달한다. 대표는 "올해도 2차전지 업체에 훈풍이 불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전체 매출 증가율이 20%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장비 리퍼비시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내년쯤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 장비 분야를 명품 브랜드화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 2차전지 제조사 해외공장에 대응하고 중국 영업활동을 개시해 매출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신규 공정 장비 개발을 통해 진입장벽을 튼튼히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 공략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개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술을 확보한 나인테크 역시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다수의 패널제조사 제품 공급 실적을 확보했다"며 "고도화된 기술로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나인테크는 국내에서 9건, 중국에서 3건씩 각각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해외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고객인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등에 이어 중국 BOE, 티엔마, CSOT, 비전옵스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상장주관사는 교보증권이며 합병법인은 교보7호기업인수목적주다. 액면가는 100원, 합병 후 주식 수는 3712만 6554주가 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50대 이상 돈 안쓴다

### 2012년 기점 소비성향 하락 주도

지난 2012년 이후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며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성향은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다 2015년 이후 소폭 반등했다.

이는 소비성향 변동이 단기간 하락한 후 바로 회복됐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비성향 등락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대비 2018년 소비성향 변화를 요인별 기여도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최근 소비성향 하락은 50대 이상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가 주도했다.

소득을 통제해 후 연령대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0.3%포인트, 40대는 -1.5%포인트, 50대는 -2.1%포인트, 60대 이상은 -1.6%포인트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해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 0.2%포인트, 2분위 -0.5%포인트, 3분위 -0.8%포인트, 4분위 -1.9%포인트, 5분위 -2.7%포인트로 고소득일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개인간 중고차 거래, 카드결제 하세요"

KB국민카드, 8월부터 서비스 도입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독 '딜카클럽'

최근 주요 카드·캐피탈사가 디지털을 더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사업역량을 키우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된 금융사들이 자동차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관련 디지털 역량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개인간 중고차카드 결제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개인 판매자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거래사기, 하자차량 판매 등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할부결제 등 보다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중고차 구독 서비스인 '딜카클럽(CLUB)'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지만 하면 구독기간 동안 원하는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간편성과 다양성을 담았다. 고객은 복잡한 서류 없이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형',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종 선택의 폭을 넓힌 '스탠다드형', 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형' 등으로 서비스 구성도 세분화됐다.

자동차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필수적이다.

독일 폭스바겐파이낸셜은 고객·딜러·금융기관·완성차업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에서는 세분화된 상품구성, 투명한 가격정보, 고객경험 기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금융그룹 모범규준 5월 시행

### 은성수 금융위원장

"잠재적 위험요인 선제관리 부족  
위험평가방식 개선엔 인센티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부분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누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시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했지만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긴 어려웠다"며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은 수시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FIDA COLLECTION CHRONOGRAPH WITH TACHYMETER SCALE  
 STAINLESS STEEL WITH IP GUN TREATMENT - WR 10 ATM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 “이사회 의사주 매입 결정,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SK이노베이션 첫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 고충알아야 내실있는 판단”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24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 전문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이야기들을 털어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40여년 간 공직 생활을 하다 SK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가 됐다.

이후 지난해 SK이노베이션 최초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에 선임돼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경영은 두말 할 나위없이 중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요한 일이다. SK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사회 의장까지 맡게 됐다”며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토리나 경영진의 노력·고충 등을 알아야 좀더 내실 있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

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장은 “지난해 정제마진이 좋지 않아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미 공시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사회에서 의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주주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리 이사회와 회사 경영진이 합심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포스코, 美기업과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1호 펀드처럼 1대1 매칭그랜트 방식 양사 임직원, 산불피해현장 방문예정



포스코 대치동 사옥.

포스코가 지난해 이어 해외 원료 공급사와의 GEM 매칭펀드 2호를 조성하며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의 글로벌 실천을 이어간다.

포스코는 24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유병옥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에니 트래서 엑스콜 사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엑스콜은 미국의 제철용 석탄 최대 수출 기업으로 포스코에는 연간 약 100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 트리플래닛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 사회책임기업이다.

GEM 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기업시민현장 선포 후 철강-광산 업계간 설립한 최초의 글로벌 매칭펀드로, 지난 11월 호주 석탄공급사 안콜(Yancoal)과 1호 펀드(펀드명: 오팔(Opal), 호주에서 많이 나는 보석)를 조성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각사 미화 5만 달러씩 매년 총 1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출연, 양국에 1년씩 번갈아 지역사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2호 펀드의 운영 첫해인 올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양사 임직원 60여명이 4월 강원도 옥계 산불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약 4ha 부

지에 1만 1천 그루를 식수하고 지속 관리하는 숲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옥계는 지난해 4월 원인불명의 산불로 수천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GEM 2호 펀드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록빛을 띠는 보석인 ‘에메랄드(Emerald)’로 명명했다.

유병옥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은 “GEM 매칭펀드 조성에 뜻을 함께해 준 엑스콜사에 감사드리며, 엑스콜의 광산 환경 복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원도 옥계의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에니 트래서 엑스콜 사장은 “글로벌 기업시민 포스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가치창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해외 타 원료공급사로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공생가치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 C&C, NH농협銀 금융상품물 고도화 완료

# 고객 경제상황 파악까지 ‘척척’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앱 설치나 인증서없이 상품 가입  
365일 24시간 금융상품 변경가능

SK(주) C&C는 NH농협은행의 ‘금융상품물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 고객의 금융 성향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유리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SK(주) C&C는 이번 사업에서 NH농협은행의 모든 고객 접점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물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뱅킹에 익숙한 청년층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에 익숙한 장·노년층도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의 스마트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



SK 주식회사 분당 사옥. /SK(주) C&C

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이 바로 제시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화상채팅, 문자채팅, 전화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응대가 진행된다.

NH금융상품물 시스템은 고객이 묻지 않아도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을 제시한다.

PC, 모바일, 태블릿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 가입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SK(주) C&C는 NH농협의 금융상품물 시스템을 중심으로 ▲디지털신상품 ▲NH프로포즈 등 개인화 마케팅 서비스 ▲NH스마트 알림 앱 ▲입출금 알림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142개 주요 시스템·서비스를 개편했다.

별도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한 ‘NH링크(LINK)’ 서비스 고도화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은행 관리자의 비대면 고객 및 상품 관리 업무를 한 번에 지원토록 했다.

또한 모바일 웹·앱 테스트 서비스 솔루션인 ‘엔티웍스’ 기반의 모바일 원격테스트 시스템도 제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최신의 NH농협 웹·앱 서비스 개발·운영을 뒷받침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25% 임금삭감

조합원 찬반 투표서 70% 이상 찬성  
본부장 직책자, 직책수당 자진 반납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경영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의 25%를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24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실시한 결과, 노사는 4개월(3~6월) 간 임금 25%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해 가결됐다. 이는 사측으로부터 무급휴직 협조 요청을 받은 조종사 노조가 무급휴직보다 효과가 더 큰 임금 삭감을 먼저 사측에

제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 위기 상황을 공감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과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수당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수지 기자

## ‘위태로운 항공업’ 에어부산, 자발적 임금반납

대표이사 이하 임원, 사직서 제출  
전직원 무급 희망휴직 적극 동참  
중·동남아 25개노선 3월 비운항

에어부산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한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일본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사태까지 연이은 악재에 따른 유례없는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에어부산의 대표이사 이하 모

든 임원들은 이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주 20~30%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에어부산 임원들은 이번 사직서 제출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영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각오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부서장도 자발적으로 임금지 10% 반납에 동참했으며 에어부산 전 직원들 역시 3월부터 무급 희망 휴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근무·무급 15일·무급 30일 등 휴직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코로나 19 사태로 탑승객이 급감한 중국 및 동남아 노선 25개를 3월 한 달간 비운항하고, 항공기 리스사 및 국내외 공항 조업사와 비용 납부유예·감면을 협의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 진에어 챗봇 사용자 전년비 17배 증가

필요한 정보 실시간 제공  
업무효율성·고객편의성 ↑

진에어가 고객 문의 사항을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답하는 안내 서비스인 제이드(JAid)의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이드는 J(진에어)가 Aid(돕는다)라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나 문의 사항을 해소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이드 이용 고객은 항공스케줄, 출·도착, 최저가 및 예약 조회 등 카테고리별로 구성된 메신저 창에서 채팅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과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원을 통해서 처리했던 업무를 챗봇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이드를 도입한 이후로 사용자는 매일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1월 사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7배 증가한 약 10만 명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 공기업 문어발확장 금지뎀... 민간일자리 20% 더 늘어

## 파이터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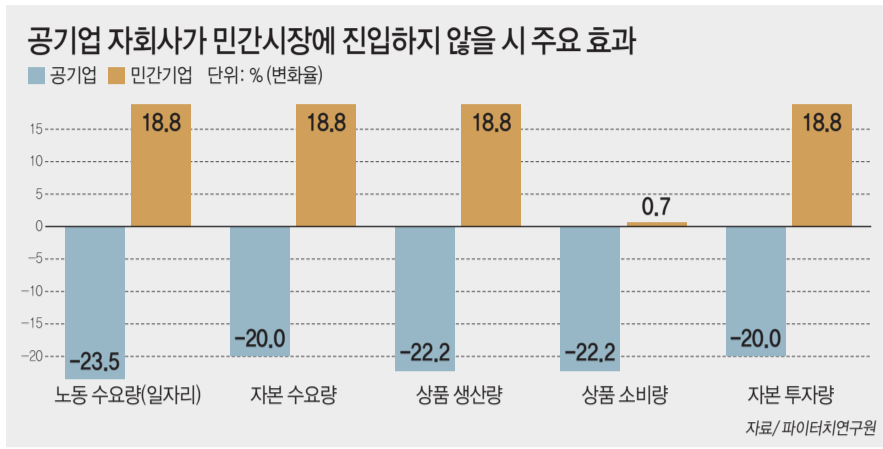
긍정효과 '사회적 복지' 5.4% 증가  
"시장진입 실태조사, 민영화 추진, 자회사 설립방지법 등 제정해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약 20%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진입을 차단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사회적 복지'가 5.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본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회사 가운데 민영화 대상을 선별, 단계적으로 민간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4일 펴낸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자회사가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 자본 투자량이 모두 18.8%씩 늘어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상품 소비량도 0.7% 증가한다.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나가는 대신 위축됐던 민간기업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효용, 민간기업 이윤, 공기업 및 자회사 이윤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자회사의 철수 또는 진입 차단으로 인해 공기업의 일자리(-23.5%), 자본 수요량(-20%), 상품 생산량(-22.2%), 자본 투자량(-20%)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공기업의 노동 임금과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업의 노동 및 상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가 집약된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오, 클린아이와 함께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의 자료를

두루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중앙공기업 모회사 매출은 176조4000억원, 자회사 매출은 44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엔 모회사 매출(22조9000억원)에 비해 자회사 매출은 2000억원으로 미미했다.

자회사를 통한 민간시장 진입과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중앙공기업과 그 자회사들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화력 발전이 본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이더블류서비스·코에너지서비스·코웨이포서비스), 경비·경호 서비스(중부발전서비스·코스포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캡코에너지솔루션·코셈터미널·한국전력기술), 일반 전기 공사업(한전KPS), 제조업·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경기그린에너지),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상공에너지)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철도 여객 운송업이 주업무인 코레일도 보험 대리·중개업(케이아이비보험중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레일관광개발),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코레일네트워크),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코레일유통), 철도궤도 전

문 공사업(코레일테크), 철도 여객 운송업(에스알), 철도 화물 운송업(코레일로지스) 등에 진출해 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도 도시철도 운송업이 본업이지만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소사원시운영), 건축물 일반 청소업(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 운송업(김포골드라인) 등을 하고 있다.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마중물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비밀비재하게 진입해왔다"면서 "이같은 공기업의 행위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만큼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을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 조사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심사위원회 설립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 선별 ▲민영화 단계적으로 추진 ▲'공기업 자회사 설립 방지법' 제정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엘코퍼레이션, 3D인쇄기 '폼3' 할인판매

3D프린팅 솔루션 기업 폼랩 독점 대리점 엘코퍼레이션이 인기 제품 '폼3'을 100대 한정으로 750만원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폼3은 3D 인쇄 기술 SLA 방식을 한 단계 개선한 저전력 스테레오리소그래피(LFS) 방식 제품이다. 레이저 스팟 사이즈를 개선해 정밀한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와 준산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폼3B와 동일한 프리미엄 버전이면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앞서 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폼랩 글로벌 로드쇼'를 진행해 폼3를 2주만에 완판한 바 있다.

한편 폼랩은 조만간 폼3B를 출시할



폼3. /엘코퍼레이션

예정이다. 산업용 레진뿐 아니라 치과, 헬스케어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치과용 레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격은 1000만원 대로 예상된다.

/김재용 기자 juk@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공청회 온라인 진행

### 과기부, 코로나19에 비대면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 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이번에는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로 준비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 성장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R&D에 따른 책임역량에 중점 투자하는 등 공공(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부처간, 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해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활동 돌입

상근위원에 오용석·원종현·신왕건  
주요 투자기준, 정책·개발 등 논의

국민연금이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앞으로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희주 기자 hj89@

## 코웨이, 日 도쿄서 공기청정기 특별展

코웨이는 봄철 공기청정기 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3월2일까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초타야 가덴'에서 공기청정기 특별 전시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초타야 가덴은 일본에서 가전뿐 아니라 도서·가구·인테리어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전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코웨이는 초타야 가덴 내에 코웨이 공기청정기 특별전을 마련하고 신규 출시 제품인 멀티액션미니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주요 공기청정기를 전시한다. 특히 코웨이 공기청정기 성능 체험존을

별도로 마련해 코웨이만의 강력한 청정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초타야 가덴에서 요리를 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토크 이벤트도 열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과 퀘퀘한 냄새를 공기청정기를 이용,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공유한다.

2018년 하반기에 일본 공기청정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코웨이는 강력한 청정성능과 공간에 잘 어울리는 제품 디자인으로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얼리어답터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멀티액션미



코웨이가 일본 도쿄 초타야 카덴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특별 전시관 전경.

니 공기청정기는 지난 2016년 당시 국내에 선보인 대표 공기청정기인 멀티액션 공기청정기(AP-1516D) 후속 모델이다. 비교적 적은 평형대의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맞춰 권장전용면적 33㎡로 개발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 개강연기 학업손실 “EBS가 책임져요~”

전국 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육 공영방송 EBS가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손실 최소화에 나섰다.

EBS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비상대책단)’을 긴급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비상대책단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EBS, 교육지원 비상대책단 가동 교과과정 2.8만개 콘텐츠 제공 온라인 가정 교육 시스템 강화 수업 결손 등 학업손실 최소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되는 등 수업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EBS가 보유하고 있는 초중고 교과과정 기반 2만8000여 개의 콘텐츠(초등 4200여 편, 중학 5800여 편, 고교 1만8000여 편)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EBS의 모든 사이트 초기화면을 전면 개편해 24일 오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비상대책단은 아울러 학생들이 EBS 학습 콘텐츠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준비해 사이



EBS 온라인 교실 /EBS

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교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학습콘텐츠를 구성하고 학급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도 구축해 학교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특별 생방송 진행, 프로그램 긴급 편성 등을 통해 실시간 교육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등 EBS의 모든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EBS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학교안전 맵’을 제작해 EBS의 모든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 공공도서관 등 2만 4000여 개의 교육관련 시설과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칭시켜 지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운영된다.

EBS 김명중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기업 90% “불황에 신규 채용 부담스러워”

10곳 중 9곳 “불황 작년보다 심해” 채용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키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황을 체감하고, 신규 채용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사람인이 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불황 체감과 인건비 부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5%는 ‘불황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91.5%는 지난해에 비해 불황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차이 없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불황으로 인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도 89.7%였다. 이로 인해 달라진 변화는 ‘채용 규모 축소’(39.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채용을 잠정 중단함’(34.1%), ‘경력직 채용 비중 높임’(25%), ‘사내추천 활용’(11.5%), ‘인턴 등 채용 전 검증체계 강화’(9.7%), ‘수시채용 확대’(9.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고 응답한 기업(134개사)들은 불황이 아닐 때에 비해 채용 인원을 평균 40.7%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의 81.8%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할 대응책으로는 ‘임금 동결’(30.6%, 복수응답)을 선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규모 축소’(25.5%), ‘상여금 축소 또는 지급 중단’(24%), ‘인원 감축’(23.4%), ‘채용 중단’(19%), ‘야근 및 휴일 특근 금지’(17.5%),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11.9%) 등이었으나, 12.8%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 기업의 62.6%는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70.5%, 복수응답), ‘매출 하락 및 성장세 둔화’(39.5%), ‘인건비 외 고정비 증가’(23.6%),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추가 인력 고용’(17.8%), ‘숙련 인력 유출로 1인당 생산성 악화’(6.2%) 등을 들었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해외 한국어 교육에 126억 투자

지난해 66억 보다 올 90% 상향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 교재·교과서 개발

교육부가 올해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에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1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은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에 한국어반이 첫 개설된 이래,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30개국 1635개 학교에서 14만500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은 전년도 66억원 대비 올해 90% 상향된 126억원이다. 특히 한국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와 교과서 개발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과테말라, 라트비아 등 8개국과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미얀마, 라오스 등



김정숙 여사와 나라편 태국 총리 부인이 지난해 9월2일 태국 방콕 차트리움 호텔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관을 마친 후 간담회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신남방·신북방 지역 4개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 한국어 교과와 학년별·수준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국가의 체계적인 한국어 반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국어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의 방한 몰입연수를 250명까지 확대하고, 10개 현지 대학내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작년 대비 140% 증가한 132명의 한국어 교원 자격(한국어교원 2급 이상) 소지자를 파견하고, 체재비도 20% 상향했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 중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현지 6개 대학 내

에 한국어 교육 학위과정이나 1년 미만의 단기과정 개설도 지원한다.

베트남 하노이, 말레이시아 등에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신설하고,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폭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고,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며, 말하기 평가도 신규 도입해 평가체계 완성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2019년 기준 37만5000명에서 2022년 7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용수 기자

# 대졸 신입연봉 大 4118만원, 中 2840만원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졸 초봉(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자 기준, 기본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불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공기업·공공기관은 전일제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결과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 보다 1.4% 인상된

수준이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올해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올해 공기업/공공기관의 전일제 정규직 신입 연봉은 평균 368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 한성대-국립소방연구원 소방연구개발 협업 맞손

한성대학교는 지난 21일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연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첨단 기술 교류와 소방 R&D 체계화를 추진하고 관련 인재양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성대는 4차 산업 ICT 첨단 기술 분야인 AI·IoT·VR/AR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소방과 안전에 관한 실용 교육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한 첨단 기술 개발과 콘텐츠 등을 포함해 글로벌 선진 소방 안전 연구기틀을 마련하고 정부나 민간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주도 추진한다. /한용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정수초교에 ‘한옥형’ 교실 착공

학생들이 일상에서 한옥건축물을 경험하도록 서울정수초등학교에 신한옥형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정수초등학교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옥교실을 건립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옥교실 사업 구상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옥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보급화를 목적으로 제안했고, 서울시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2018년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지난해 기획과 설계가 진행돼 24일 착공, 올해 8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성 부지와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설계, 시공 일체를 담당한다.



서울정수초등학교에 건립되는 한옥교실 조감도

한옥교실은 지상2층 연면적 345.77㎡ 규모로, 서울정수초 기존 교사시설과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지상 2층의 본체와 특별활동에 사용하는 단층의 사랑채, 전체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인 전면 회랑으로 구성된다. /한용수 기자

# 종로학원, 27일까지 휴원

종로학원은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25일~27일까지 3일간 휴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연장 여부도 회의를 통해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학원 일부학원은 앞서 3월1일까지 휴원을 발표했고, 학교 개학이 3월9일로 연기되면서 일주일 간 학습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종로학원 각 학원은 휴원 기간 동안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강 후 보충,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해 재수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휴원 기간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지만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동선을 각 담임이 자가격리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추후 학원 복귀시 대비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IJ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주문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의사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KT스카이라이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의 안테나' 지원 맞손** KT스카이라이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아동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사랑의 안테나' 후원을 통한 방송 복지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 21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분기 15개소 이상의 복지시설을 선정해 연간 총 1억4300만원 상당의 초고화질 UHD 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왼쪽)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 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에 안희준 교수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21일 정기총회에서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57·사진)가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안 회장은 강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와 재무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외 학술지에 시장미시구조, 투자론 분야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손영지기자 sonumji301@

###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가 中企 모집

중진공, 올 210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과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25만명의 해외바이어가 이용하는 고비즈코리아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2100개사를 지원한다.

올해 100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인 '온라인전시회' 사업은 온라인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전시관을 구축하고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에게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깨끗한나라 '순수한면' 새 모델에 조보아

깨끗한나라는 여성용품 브랜드 '순수한면'의 새 모델로 배우 조보아(사진)를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보아는 드라마와 예능에서 순수하면서도 당찬 매력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 드라마 '포레스트'에서 '인간 피톤치드'를 연상케하는 청량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순수한면'은 피부에 직접 닿는 면이



100% 자연 순면으로 이뤄진 순면커버 생리대 브랜드다. 100% 순면을 사용하는 제품에게 주어지는 네추럴 트레이드마크와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사에서 피부 무자극 테스트 엑셀러트 등급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 코로나19와 소상공인들의 전쟁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한국창업경영연구소와 한국소상공인 컨설팅협회가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의 소상공인들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가히 충격적이다. 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 256업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보다 평균 64.7% 감소했으며 업종에 따라 25~90%까지 매출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이번 조사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들 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환경, 위생 그리고 감염에 대한 무한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모든 경제활동의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며칠 전부터는 그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처럼 증가하고 있던 제주도 여행객 감소가 예상된다. 코로나라는 대형악재의 현실 앞에 과연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학습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의 사례가 그것이다. 참 어려운 시국이었으나 나름의 처방과 믿음 그리고 예방으로 모두를 극복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했다. 따라서 공공장소나 판매시설에 대한 기피보다 개인별 위생관리가 먼저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손 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별 위생과 예방환경에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자가진단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시 자신의 진단과 자가격리로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이웃으로의 전파가 각급의 대구 경북과 같은 지역 확진 확산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상황은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은 노력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안심과 안전 그리고 노력 행

동을 보여주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업장 내 모든 시설과 기구에 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자. 분무기나 기구를 활용한 위생 방역과 함께 출입구나 카운터에 손 소독제 비치와 일회용 장갑, 일회용 마스크 등의 구비를 통해 위생에 대한 믿음을 실천해보자. 매장 입구에 위생과 방역 등으로 안전하게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문구나 포스터를 부착해 노력을 공유하는 홍보도 중요하다.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컵이나 용품 등에 대한 일회용 사용도 권장한다.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고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용기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의 비치로 인한 고객 안심구매를 촉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정부의 지원과 상황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다고 한다. 더욱 작은 실천을 통해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해보자.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 SK증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1억 후원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사용  
SK증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국내 소외계층을 위해 1998년 설립된 법정 전문 모금, 배분기관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중기기술정보진흥원, 7대 원장에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제 7대 원장에 이재홍 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이재홍 원장은 기술고시 27회로 92년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장, 산업기술개발과장,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

력을 관을 거쳤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자리를 옮겨 벤처혁신정책관, 광주 전남지방중기청장과 직전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정원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R&D 및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중기부가 구상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이재홍 중기기술정보진흥원 7대 원장이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환경과장 장근우 △전자전기과장 정석진
- ◆한국에탁결제원 ◇팀장 전보 △IT전략부 IT보안팀장 권용현 △인적자원개발부 선임조사역 서승룡 △인적자원개발부 선임조사역 김병만 △증권예탁부 투자상품관리팀장 전병호 △청산결제부 채권결제팀장 오봉록 △일자리창출추진단 선임조사역 심재산 △인적자원개발부 선임조사역 이승환
- ◆보건복지부 △인사과장 손호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 △의료자원정책과장 김

- 현숙 △보험정책과장 진영주 △건강정책과장 배경택 △보건산업진흥과장 정태길 △치매정책과장 유보영 △국민연금재정과장 최봉근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조우경 △공공의료과장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 설예승
- ◆도레이첨단소재 ◇전무 승진 △김규창 구미사업장장 △추낙준 아라원사업장장 △김덕용 섬유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이상하 중합생산담당 △마초시마 신이치 수지·케미칼사업부장 △류효근 경영혁신팀장 ◇이사 승진 △류승수 경리팀장 △김진수 상해법안장 △이재선 노경팀장 △이상운

- 필터수출영업팀장 △진형식 환경안전팀장 △오상덕 TFN 부총경리 ◇전배 △임태수 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 △채상균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남병탁 섬유마케팅팀장 상무 △권용식 인사지원본부장 상무 △안상봉 SB마케팅팀장 이사 △이상보 동력담당 이사 ◇자회사 전출 △이승훈 TIS 대표이사 △유현범 TAMF 대표이사 △김현철 구미스펀테크 대표이사
- ◆데일리안 ◇팀장 △정치사회부 정치팀장 정도원 △산업부 중기벤처팀장 김명신 △문화스포츠부 문화팀장 이한철
- ◆글로벌경제신문 △최희호 건설부동산

- 팀장
- 부음
- ▲박효열씨 별세,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3151
- ▲심순례씨 별세, 김중석(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현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이사)·종인(신용보증기금 부장)·명신(부안군청 사무관)씨 모친상 = 22일, 전북 부안 호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 ▲윤기업씨 별세, 윤미용(청주시 자치행정과 조직교육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6시 15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43-210-5444
- ▲이동수씨 별세, 이주복(울산제일일보 편집이사)씨 장모상 = 24일 오전 0시 45분, 경주전문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유림로 97번길45), 발인 26일 오전 8시 30분. ☎010-33007-3515
- ▲정영남씨 별세, 국진·운용 ((주)내담 C&C 부장)·혜경씨 부친상=23일 서울 노원 을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12시(정오). ☎010-2685-0158



# 이마트·트레이더스 '코로나19' 대응 대구·경북에 마스크 우선 공급

식약처와 합동 총 221만개 확보  
경산점 등 7개점서 141만장 판매  
1500원 제품 45%할인 820원  
저소득 가정 등에 70만장 전달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식약처 및 마스크 업체 '필트'와 협력을 통해 확보한 대량의 마스크를 긴급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물량 221만 개 중 141만 장은 24일(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이마트 7개 점(경산점, 감삼점, 만촌점, 반야월점, 성서점, 월배점, 칠성점)에 81만 장, 트레이더스 1개 점(비산점)에 60만 장을 투입, 판매하기로 했다. 판매되는 마스크는 프리미엄 마스크라 불리는 '필트'의 '에티카' 브랜드로 등급은 KF94이며, 가격은 개당 820원이다.

기존 '에티카' KF94 제품이 시중에서 1,500원 이상으로 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약 45%가량 저렴하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마스크를 한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대한 많은 고객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24일 오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확보한 물량 221만장 중 141만장을 대구와 경북지역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30대로 한정 판매한다.

매장 판매 물량의 70만 장은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에 판매하며, 이 물량은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마트는 마스크 10만 장을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역 확진자가 매우 증가한 2/19-20일 양일간 마스크는 대구지역 이마트 6개 점에서 약 2만 개 가량 판매되었으며, 최근 들어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이마트가 221만 개의 마스크

를 대구·경북지역에 추가 투입 시,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긴급 확보한 마스크 물량은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트 측은 "국내 대표 유통 기업으로서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이 생필품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본사와 대구·경북지역 점포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 생필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현대리바트, 스티로폼 6.8톤 절감

스티로폼 제로화 캠페인 7개월 성과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나선 현대리바트의 친환경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스티로폼 사용 제로화' 캠페인을 통해 스티로폼을 7개월(2019년 7월~2020년 1월) 만에 23만 개(약 6.8t)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티로폼 23만 개(약 6.8톤)는 서울시민 7240명이 1년간 배출하는 스티로폼(합성수지) 폐기물과 맞먹는 규모다.

현대리바트는 그 동안 주방 가구나 불박이장 등 일부 가구 배송시 제품 모서리 보호나 빈 공간을 채우는 완충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0% 재생 종이로 만든 친환경 완충재 '하니콤(Honeycomb)'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에서 가구 포장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현대리바트가 유일하다.



현대리바트 용인 본사 전경 /현대리바트

지난 7월부터 7개월간 현대리바트가 사용한 하니콤 완충재는 총 40만개로 내년에는 연간 70만개의 하니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측은 내년에 절감하게 되는 스티로폼 양이 50만 개(약 16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국내 가구업계에서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B2C용 가구 전 제품에 친환경 목재인 E0 보드만을 적용하는 '유해물질 제로경영'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노력해왔다.

/김민지 기자

# G마켓, 트렌디 서비스 '이달의 신생활'

G마켓은 라이프 큐레이션 전문관 '이달의 신생활'을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트렌디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이달의 신생활 서비스는 주유 할인권이다. 오는 28일까지 모바일 주유 할인 플랫폼 '오원'과 함께 GS칼텍스 주유 할인 5000원권을 혜택가에 제공한다. 결제금액은 100원으로, 결제 이후 G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캐시'로 잔액 환급될 예정이다. 해당 주유 할인권은 전국 300개 이상의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 할인권은 매일 오전 1만 개씩 선착순 판매돼, 행사 기간 동안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많은 고객들이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ID당 1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후 오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주유소의 위치와 가격을 확인하고, 리더 또는 금액으로 주유량을 결정해 예약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 '전자레인지 1분 조리' 비비고 생선구이

CJ제일제당, 월평균 매출 30% ↑  
고등어·삼치·가자미 구이 등 3종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8월 출시 후 월평균 30% 이상씩 성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가자미구이 등 총 3종으로, 불 없이 전자레인지 1분 조리 간편하게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는 소포장 형태의 냉장 수산 가공간편식(HMR) 제품이다.

매출 성장은 이 달 들어 더욱 가파르다. 지난 21일까지 비비고 생선구이 매출은 지난달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출시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생선 생선을 손질하거나 조리하지 않고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최근 비대면, 비접촉 소비를 선호하



비비고 생선구이 /CJ제일제당

면서 더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 대형마트에서 생선 생선을 구매해 직접 조리해 먹던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은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비비고 생선구이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선도 문제로 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냉장 제품을 구매하기를 주저하던 고객들이 빨라진 배송 시스템을 통해 구매

를 늘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비고 고등어구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객 평점은 5점 만점에서 4.8점을 기록 중이고 2회 이상 재구매하는 비율도 60%(CJ더마켓 기준)를 뛰어넘으며 충성 고객도 늘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고등어 생물을 구매해 구워 먹는 맛 품질과 유사하면서 환기가 겨울철 특성상 연기와 냄새 없이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계영 CJ제일제당 냉장마케팅담당 부장은 "최근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면서 비비고 생선구이의 매출은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채널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라며 "온라인에서 3040세대 주부를 타겟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채널 매출 극대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 어퓨x로라로라 콜라보 에디션 22종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어퓨'는 패션 브랜드 '로라로라'와 함께 '어퓨x로라로라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어퓨x로라로라 콜라보 에디션'은 봄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플라워 패턴 패키지로 디자인됐다. '괴즙광 당 티트' 8품목과 '괴즙광 머랭 블러셔' 6품목, '커버광 쿠션' 6품목, 기획세트 2품

목 등 4종 22품목으로 구성됐다.

'괴즙광 당 티트'는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발리는 점이 특징이다. MLBB(My Lips But Better) 컬러인 '고용안정대추당', 핑크와 코랄이 섞인 '경기호황구아바당' 등이 선보였다. 용량은 4.5g, 가격은 9000원이다. '괴즙광 머랭 블러셔'는 입자가 고와 무침 없이 맑게 발색된다. 코랄 베이지 컬러의 '맛있는무화



과랑', 톤 다운된 핑크베이지 컬러 '잘말린자두랑' 등이 준비됐다. '커버광 쿠션'도 새로운 패키지를 얹어 이번 에디션에 포함됐다. 가볍게 발리지만 작은 결점까지 잘 가려준다. 색상에 따라 포슬린, 비닐라 등 3가지가 준비됐다. /조효정 기자

# 아카이브 앱, 봄·여름시즌 신상품 출시

코오롱FnC, 우신사 입점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양가죽 소재 브랜드인 '아카이브 앱(Archivepk)'가 2020 봄/여름 시즌부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유통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아카이브 앱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우신사'에 2월 17일에 입점했다. 우신사는 여성 전문 쇼피몰로 유명 내셔널, 디자이너 여성복, 잡화 브랜드들이 입점하며 많은 여성 고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처럼 아카이브 앱은 다양한 소비 스타일에 맞춰 온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브랜드 웹사이트를 오픈해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속해서 보여줄 예정이다.



아카이브 앱 20SS시즌

특히, 아카이브 앱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흐름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런칭했으며, 2019년, 코오롱 온라인몰과 W컨셉에 입점한 바 있다.

아카이브 앱은 이번 20봄/여름 시즌,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의 일상을 즐기는 '나만의 낮선 시간 - 스피릿 포 에피소드'를 테마로 다양한 상품을 전개한다.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기 위해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타일 수를 한정 지어 품질과 컬러에 집중했다.

/조효정 기자



# 강스템, 아토피 줄기세포 재도전

〈퓨어스템 AD주〉



지난 임상결과 면밀하게 분석  
분석결과 재임상 프로토콜 반영  
“유효성 입증 가능할거라 확신”

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개발 중인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 시험 재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과 관련해 유효성이 미흡하다는 탐라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 AD주’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계절성, 연령, 성별, 환자별 특성, 중증도, 병용 약물 등 수십 개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여러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며, “그 결과를 향후 진행될 재임상 프로토콜에 반영함으로써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상 3상 재개의 주요 요인으로 먼저, ‘퓨어스템 AD주’ 임상 3상 시험에 사용된 병용금지제의약품과 줄기세포 치료제와의 약물상호간섭작용에 따른 효과 저하 요인을 들었다. 기존 임상 3상 결과에서의 EASI-50 달성률보다 병용금지제의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의 EASI-50 달성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기세포치료제의 제조 후 투여까지 소요시간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강스템바이오텍이 2013년부터 2년간 시행한 임상 2a상(서울 소재 병원 1개소에서 진행)의 경우 평균 8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임상 3상에서는 평균 26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점에 주목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동물 대상 비교시험 결과에서도 제조 후 투여까지 소요시간 정도에 따라 병변의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는 살

아있는 세포치료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생산에서 투여까지의 소요시간 차이가 약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밖에도 다양한 분석결과를 반영해, 임상 전반을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개될 임상 3상에서는 ‘동결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통해 대상 환자 투여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고, 병용금지제의약품 투여를 변경한다. 임상설계 변경사항과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식약처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임상을 신청 할 계획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이사는 “‘퓨어스템 AD주’의 유럽임상도 국내 임상의 변경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유럽임상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퓨어스템 AD주’의 해외기술수출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주간엔 유인, 야간엔 무인

# ‘CU 바이셀프’ 100호점 오픈

본인 인증을 통한 출입·셀프 결제  
근무자 운영 효율·이용자 편의 ↑



CU 바이셀프 100호점

CU가 사람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편의점인 ‘CU 바이셀프(Buy-Self)’ 100호점의 문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CU 바이셀프 100호점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24일 오픈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근무자의 운영 효율은 물론,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CU가 2018년 4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이셀프 편의점은 24시간 인력 운영이 어려운 특수 입지에서 주간에는 유인(有人), 야간에는 무인(無人)으로 병행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본인 인증을 통한 출입 시스템 및 셀프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특수 점포로 주로 인스쿨(In-School), 인 오피스(In-Office), 인 팩토리(In-Factory) 등을 중심으로 입점하고 있다.

바이셀프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은 CU 멤버십 회원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출입 인증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사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셀프 편의점에서 출입 인증 및

결제에 사용되는 CU 바이셀프 앱은 BGF리테일이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셀프결제 앱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출입 인증부터 상품 스캔,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CU는 이번 100호점 오픈과 더불어 포켓CU, 신한PayFAN, 카카오페이까지 출입 인증 채널을 더욱 확대했다. 신한PayFAN, 카카오페이는 CU 단독 제휴처다.

CU 멤버십 고객이 해당 앱으로 매장 출입문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인증을 통해 문이 열린다.

상품 구매 시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주류, 담배 제외)의 바코드를 직접 스캔하고 구매 명세 확인 후 바이셀프 앱이나 신한PayFAN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포켓CU와 카카오페이로 입점한 고객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면 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코오롱생명 자체개발 신약, 美 임상 돌입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체 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신약(KLS-2031)의 미국임상 1상·2a상을 3월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약은 미국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받아, 신약 개발 일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KLS-2031’은 기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방식과는 달리, 특허받은 유전자 조합을 이용한 주사 요법의 치료제다. 1회 국소 주사 시술방식으로 진통 효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기존 시판된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통증으로, 환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감각신경계 질환이다. 해당 병증의 주된 치료제는 진통제 계열로 지속적 효과 및 근원적 치료가 불가능하다.

유전자 조합 이용, 주사 요법 치료  
美 패스트 트랙 지정, 개발 속도

또 최종 진통제로 주로 쓰이는 아편 계열의 약은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 내 미충족 의료가 매우 높은 질환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KLS-2031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다음 달, 첫 환자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내 2개의 임상 기관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 1상·2a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KLS-2031 임상 1상·2a상의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투약 후 24개월간 추적 관찰 하며, 이를 통해 이후 임상 단계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아 신약개발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韓 신약개발 대상

〈뇌전증 신약〉

국내최초 美 FDA 신약판매 허가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제품명:엑스코프리)가 대한민국의약품개발사업 신약개발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대상 부분발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이다. 임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작빈도 감소율’ ‘안전발작소실률’을 기록하였으며, 난치성 뇌전증 질환 분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약물 투약 기간 중에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발작소실’은 환자의 일상 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뇌전증 신약 선택에서 중요

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NDA)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 FDA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임상 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 수출 없이 독자 개발하여 미국 FDA 신약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국내 최초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 내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분야 및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상업화 성공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경영진들과 함께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세경 기자



인터컨티넨탈 비건 와인(Vegan Wine)과 비건 메뉴 페어링

# “비건 와인 맛보세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와인 중 하나인 ‘비건 와인(Vegan Wine)’을 업계 최초로 소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석 소믈리에와 셰프가 함께 고안한 프렌치 스타일의 비건 메뉴 페어링도 3월부터 1층 로비라운지&바에서 만날 수 있다.

비건 와인의 풍미를 더 해줄 비건 메뉴 페어링도 함께 선보인다. /조효정 기자



스타벅스, 봄 시그니처 음료 출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봄 시즌 시그니처 음료 ‘슈 크림 라떼’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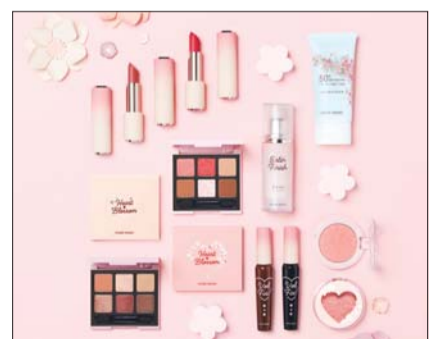
# “벚꽃 담은 컬러로 ‘봄’ 맛이 화사하게”

에뛰드 ‘하트 블라썸’ 한정 출시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가 벚꽃처럼 피어나는 하트를 담은 설렘 가득한 벚꽃 컬러의 ‘하트 블라썸’을 한정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뛰드 신제품 ‘하트 블라썸’은 벚꽃처럼 피어나는 ‘하트’에서 영감을 얻은 뉴트르 감성의 리미티드 컬러 제품으로 따뜻한 핑크 컬러에서 피치 코랄 컬러까지 설렘 가득한 S/S 무드를 담은 제품이다.

‘하트 블라썸’은 메이크업 제품부터 베이스, 선 젤, 퍼프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하트 블라썸’은 컬러 별 꿀 조합



에뛰드, ‘하트 블라썸’ 컬러선 출시

으로 하트를 부르는 6컬러 아이 새도우 팔레트이다. 톤앤톤 컬러 조합으로 언제 어디서든 데일리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며, 벚꽃 잎을 압착한 듯 화사한 글리터 펄을 사용하여 독보적인 펄감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 KCC 신입사원, 시각장애인 위해 목소리 기부

### 오디오북 만들어 독서취약가정에 전달

KCC신입사원들이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 기부에 나섰다.

KCC는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어 동화책을 읽어주기 어려운 독서취약가정에 기부하기 위해 신입사원들이 재능기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눔 활동에는 사회적이업 알로하 아이디어스도 함께 했다.

이번 녹음을 위해 신입사원들은 전문 성우로부터 목소리 연기 훈련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녹음에 참여한 한 신입사원은 "눈으로 읽는 대신 소리로만 내용을 듣는 오디오북만큼 녹음할 때 발음이 어렵거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각각 미리 펜으로 표시하고 포스트잇을 붙여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많은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총 4시간 가량 진행된 목소리 녹음을 통



목소리 기부에 참여한 KCC 신입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해서 신입사원들은 '눈다래기 팔아요', '토끼와 거북', '엄마손은 약손', '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등 총 4편의 동화책 오디오북을 완성했다.

재능기부에 동참한 또다른 신입사원은 "동

화책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 목소리를 통해 아이들이 동화 속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상상력을 키우고 국어 습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타다 '무죄'



###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타다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이용자와 쓰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재판부가 타다의 무죄를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 콜택시' 오명을 쓴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법원 밖에서 만난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택시 불친절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도 많다. 렌트카로 사람이 동시켜주면서 돈 받는 유사영업을 허용하면, 앞으로 누가 택시면허를 따려고 하겠냐" 등의 울분을 쏟아냈다.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많다. 아직 타다에 논란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렌트카를 통한 유사운송을 하려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택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 '여객운수법 개정안 즉시 통과' 대규모 켈기대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시위의 역효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산업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윈윈전략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 본다. 무조건적인 타다 반대는 승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타다는 최근 택시와의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 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 떠올른다. /yuni2514@metroseoul.co.kr

# 한화큐셀 태양광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서 대상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이 에너지 저소비 부문에서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신정이펜하우스5단지'가 서울시에서 개최한 '2019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경진대회는 에너지절약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한화큐

셀이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 일환으로 2018년 설치한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옥상 태양광 발전소는 240kWp(키로와트피) 규모로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선정된 한화큐셀과 같은 대여사업자가 가정과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절감한 전기

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여사업자는 계약기간 7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설비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화큐셀은 2014년부터 5년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5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사소한 일에 성질내는 것을 삼가 보도록. **48년생**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도 능력. **60년생** 도중하차(途中下車)는 아니지만 겁만 못하다. **72년생** 어떠한 일이건 해낼 수 있는 날. **84년생** 재능이 출중하지만 협력해서 해야.
- 37년생** 황혼 결혼식도 긍정적으로. **49년생** 삼재이니 건강 기도를 신청해보라. **61년생** 궁지에 몰려 행동의 제약이 생긴다. **73년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공할 것. **85년생** 학습의 체계는 드넓은 스승이다.
- 38년생** 후량이 없는 곳에 여유가 편하다. **50년생** 돈이 사람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게 한다. **62년생** 열을 붉은 꽃이 없으니 운이 왔을 때 열심해. **74년생**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소름을 자제. **86년생** 늘 기본에 충실하라.
- 39년생** 대가족 행사로 바쁜 하루. **51년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재물도 들어온다. **63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후배에게 교감을. **75년생** 업무 중에 남에게 의심 살만한 일은 자제. **87년생**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는다고 했다.
- 40년생** 대들보가 무너지면 사기래도 무너진다. **52년생** 인생의 예수는 경험일 것이다. **64년생** 땅에서 밭을 갈고 물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 세상 이치. **76년생** 갑작스러운 초고속 승진 예상. **88년생** 열심히 했으나 힘만 든다.
- 41년생** 한배에 탔으니 힘을 합쳐라. **53년생**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판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 **65년생** 늦은 결혼이나 즐거움이 꽃핀다. **77년생** 오후 되면 신규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89년생** 겸손의 공덕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 42년생** 손자의 재주가 비상하니 조심해 감사. **54년생** 산 위에 외로이 비추는 달처럼 감동의 날. **66년생** 업무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78년생** 형들이 있으나 내가 많이 노릇. **90년생** 어찌 그 남자는 그림의 떡.
- 43년생** 밖에도 나가고 하자. **55년생** 머리가 가려운데 발꿈치를 긁는다. **67년생** 생 소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한다면 사업의 투자는 신중. **79년생**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주변이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길. **91년생** 기억력을 향상하라.
- 44년생**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나를 멀리한다. **56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68년생** 돈을 못 버니 허수아비 남편이 된다. **80년생** 하나를 알면 몇 가지가 인공되니 기회가 온 듯. **92년생** 분수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날.
- 45년생** 모아서 부모님의 산소재정비를 계획. **57년생** 아직은 젊으니 외모에 신경 쓰면서 기분 좋다. **69년생**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 **81년생**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추진하라. **93년생** 일이 미흡해도 전진해야 발전.
- 46년생**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니 건강에도 도움. **58년생** 업무에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70년생** 본인이 저지른 일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해결하라. **82년생** 잘못된 투자는 결국 내 손실로. **94년생** 본심수이니 지갑 잘 챙겨라.
- 47년생** 초년 입신양명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 **59년생** 주변에 회색분자(灰色分子)를 경계. **71년생** 선배를 공경하니 업무가 척척 될. **83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해야 좋다. **95년생** 전화금융사기 등의 책에 걸리지 않도록.



# 김상희의四季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

신중기도는 사찰의 규모에 따라 보통 7일 동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초사흘까지 삼 일만 하기도 한다. 불보살님은 물론 일백사위 신중들께 특별히 한 해의 복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두호해주시기를 빈다.

기대들이 큰 만큼 정초에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 경자년은 특히나 시작부터 요란하였으므로 발원을 통하여 의도치 않은 우환을 피해갈 마음의 힘을 키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기도해서 다 이뤄진다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냐고 한다. 그렇다. 기도한다고 다 이뤄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단 것엔 동의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간절하다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처음엔 무조건 기도효험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에 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마음이 차분해진다. 자신의 바람대로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혹여 그렇지 못한 경우 에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도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할 인연의 일이라면 발원이 무르익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당장 내 생각엔 이뤄지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일의 결과가 인연 법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더 좋은 때의 인연을 위하여 명훈가피로 쌓이게 된다.

보현행원품에도 그러한 뜻을 보여주는 "발원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불보살은 미래도 함께 꿰뚫어 아시기에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 결과가 오히려 불신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발행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8			9	5			7
2	3			7		9	6
		9		6		3	8
	6			5	8		1
	2		3		6		9
3	5		2	1			7
5		2		8		6	
6	8	1		9			3
4			6	7			1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86호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23일 오후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돼도 실손보험 보장 안돼

## 코로나19 보험 보장 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 '음성' 판정엔 실비 가능하지만 자의로 검사 신청시 적용 안돼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 입원비 특약, 사망보험금 가능 업무 중 감염 확인엔 산재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軍 보급품은 안녕하신가?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다. 최근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중국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라인이 잠시 멈췄다. 때문에 중국제에 의존하는 우리 국군의 보급품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해 진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안보의 위기와 맞물린다면, 국군의 보급품 일부도 중단될지 모른다.

피복, 장비, 식량 등 전력지원물자(보급품)는 무기와 달리 일상용품에 가깝다. 다만, 일상용품과 달리 군의 특수성에 맞춰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과 관리의 편리성, 강한 내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의 안정성 등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을 비롯 각 군은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한국형'을 밀어넣는다. 거기가 군납품 시장이 마치 경기특수를 만드는 시장인양 '묻지마 입찰'을 조장한다. 생산업체일 필요도 없고,

구매해서 조달만 해주면 땀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전력지원 물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군납업체 이외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고 권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군에서 나이키 신을 수 있다',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에서 먹는다' 등의 귀엽고 재미난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급품 관련 국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나이키 같은 해외 유명업체, 국내 굴지의 유명기업이 군납업체가 아니라서 못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싸게 빨리 아무나 납품하십시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도 모르며 떠는 결과는 뻔하다. '나이키 대신 나이시다'

우리군이 사용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다. 지난해 기자가 군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중국제 응급조치킷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험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제 마스크는 사들이면서 자국산 마스크 원자재의 한국수출을 막았다. 만약 중국에서 더 큰 급변사태가 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

다면 중국이 응급조치킷을 신속히 제공해 줄까.

우리군의 특수부대가 구매조달한 '특수작전용 칼'도 중국산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가짜 5000개에 이어 올해도 5000개 추가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중국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가짜임을 알고도, 심지어는 상표법을 어긴 것을 알고도 업체의 사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2018년 처음으로 정품 특수작전용 칼이 납품됐음에도, 그보다 못한 중국제 복제품을 사면서 군은 "우리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산 제품의 공급제한, 재고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보급품은 일상용품보다 더 민감하다. 중국제 저가, 또는 복제품에 의존하는 국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괴멸이다. 군 수뇌부는 군의 미래를 위해, '국제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captai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다음달 6일까지 2주 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 2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이 한산하다. /뉴스1

# 軍 병역검사도 올스톱 외출·외박·휴가 금지

## 병무청 신검 내달 6일까지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13명'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돼 13명이 됐다. 군당국도 확산예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핵심 수뇌부가 모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군 본부 등의 출장을 금지시키고, 군의 주요 보안 방호시설 등도 군간부의 출퇴근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병무청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시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중단은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람 톱 등으로 개별안내된다.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자는 1만 6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동원예비군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에 비군(하사이상 중령이하)들의 소집 교육이 4월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동원훈련등의 일정이 4월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내 코로나 19 관련 격리인원은 7900여명으로, 군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전장병의 외출·외박, 휴가를 통제했다. /문형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현대차, 채용면접 연기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신입사원 채용 면접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채용 면접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취한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작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신입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부분별 상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부서별로 자체 면접 일정을 잡아 본사 면접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식약처, 대구시·청도군에 마스크 100만개 긴급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개를 긴급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번째 공급 물량이 현지에도 도착한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지원한 데 이어, 긴급히 예산과 물량을 확보해 직접 구매해 공급하게 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마스크의 지급 대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wink

4세부터 9세 까지,  
유아동 학부모님이 선택한  
1위 학습지 **윙크**

그 선택의 이유는?



“하원 후에 스스로 공부하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즐거운 공부습관을 선물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윙크 학습** 검색 후, 윙크 **무료학습**을 신청해 보세요!

가입코드란에 [메트로]를 입력한 신청자 전원에게 윙크 한글, 수학, 영어 교재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칠공부책**을 선물로 드려요!





동네방네

해양교통지킴이가 뜬다... 안전한 뱃길 구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5명 위촉  
항로표지 고장시 신속 신고·복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안전한 뱃길을 위해 항로표지 고장에 대비해 15명의 해양교통안전지킴이를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항로표지 고장시 신속한 신고와 복구체계를 마련키위해 선정된 것이다.

항로표지는 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뱃길을 안내하는 항행보조시설로써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항로표지가 고장, 소등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박안전운항에 어려움으로 자칫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및 기름 유출 등 막대한 인적·환경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항로표지 기능 이상 발생에 대비해 지역 어촌계, 도선사, 해경 파출소 및 지역 주민들을 지킴이로 위촉하여 빠른 신고와 복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

안성시, 대중교통 요금할인 마일리지 사업 시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급

안성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 받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도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

를 적립해, 교통 요금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마일리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두 배가 지급된다.

교통카드 신청 및 앱 이용 방법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경기)=이보현 기자



장성에 봄 재촉하는 '노란 산수유꽃' 2월의 끝자락인 24일 장성군 황룡강변에 핀 노란 산수유꽃이 봄을 재촉하고 있다. 장성군은 옐로우 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황룡강 일원에 황설리화, 개나리, 산수유 등 황금빛 수종을 식재해 오고 있다.

2월의 끝자락인 24일 장성군 황룡강변에 핀 노란 산수유꽃이 봄을 재촉하고 있다. 장성군은 옐로우 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황룡강 일원에 황설리화, 개나리, 산수유 등 황금빛 수종을 식재해 오고 있다.

/장성군청

함평군, 농기계 점검 완료... 임대사업장 재개

68종 399대 농기계 보유

함평군이 동절기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에 돌입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영농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이날부터 다시 재개됐다.

앞서 군은 농기계 임대 수요가 많은

봄철을 대비해 지난 겨울 동안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 정비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군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과 동부지점(해보면), 서부지점(손불면) 등 본점에 총 68종 39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전남=나성주 기자 nsj3983@

오늘의 날씨: 2월 25일 (화) 음력: 2월 2일. 수도권 날씨: 6~9°C. 전국 날씨 지도: 연천 5/10, 동두천 5/10, 가평 3/7, 파주 7/10, 서울 6/9, 양평 6/9, 인천 7/9, 수원 7/10, 용인 7/10, 평택 7/8, 백령도 6/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시,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2곳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존환자 이송... 병실확보 총력”

경미한 환자들 중심으로 수용 병실부족 사태대비 선제 대응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필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 2곳이 보건복지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후속 대책이 추진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최종 지정돼 이날부터 기존 환자이송 등에 나선다.

현재 이 병원에는 123병상에 입원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병원 측은 경증 환자의 경우 환자 보호자와 논의해 자가용 등으로 이동하고, 중증 환자는 구급차량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병원은 150병상 규모이며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확산될 경우 경미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총 10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은 지난 17일과 19일 퇴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광주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 2곳을 지정했다. /뉴스1

지난 20일부터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 7명이 전남대·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신도들을 만난 밀접접촉자도 수백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추가 1곳을 더 지정할 예정이며, 접촉자 관리 시설도 기존 광주 소방학교생활관과 5·18 교육관(104명 수용 가능)을 추가 확보했다.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격리

병상(1인실 기준)’은 광주에 12개뿐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 각 7개·5개가 있다. 민간 병상을 포함하면 16개다.

22개 시·군인 전남의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국립목포병원에 2개(1인실)만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격리병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미리 병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발로 뛰는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속도

신우철 군수 등 정부부처 방문 지역 숙원사업 지원·협조 요청

전남 완도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인다.

완도군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는 ‘완도고급-고흥거금간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약산 당목-금일 일정 간 연륙교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인 ‘해양치유산업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예산(국비 93억원)을 요청했다.

완도의 풍부한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해조류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개최하는 ‘2021 완

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업비(국비 20억원) 지원도 건의했다.

해조류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과 내년도 해조류박람회 기간 열 수산물 수출상담회의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대비 16.5% 증가한 국비 1835원을 올해 확보한 완도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정지권과 긴밀한 소통으로 정부 예산 편성 시기보다 한 단계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中企 공정혁신으로 생산시간·비용 절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형·혁신형 R&D 사업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조공정 효율화(현장형 R&D), 스마트공장 고도화(혁신형 R&D) 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형 R&D 사업은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을 돕는다.

최장 1년간 총사업비의 75%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 R&D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중소기업과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년간 총사업비의 65%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스마트공장을 이미 구축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김일선 창업벤처과장은 “현장형 R&D 사업과 혁신형 R&D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화순군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화순군이 오는 3월 6일까지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식품접객업, 급식소 등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한다.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비의 70% 범위에서 ▲가정용 40만 원 ▲사업장용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전남=김태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시차출근제 시행... 역학조사반 4배 확대

시내 2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관리기관에 서울의료원·서남병원 광화문 불법집회시 시설물 철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반 확충, 직원 시차출근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역학조사반 인력은 기존 4개반 24명에서 16개반 96명으로 4배 확대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현장 역학조사반'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며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한다. 출퇴근 시간 조정에는 25개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 총 4만2000여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소재 기업,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도 시차 출퇴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는 ▲현장 역학조사반 확대 운영 ▲대중교통 시설 혼잡도 감소를 위한 시차출근제 도입 ▲고위험 우려시설 중점방역 및 밀접접촉자 관리 ▲재난대응체제 강화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TBS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는 기존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운영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민까지 진료 대상을 확대해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환자 접근을 차단,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413개 병상을 확보했다. 앞으로 총 900병상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는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어린이집 5705곳, 초등학교 495곳, 문화체육시설 73곳은 휴관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은 3월 9일까지 2주간 휴원한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당번 교사 등을 배치한다.

잠실 실내체육관, 고척돔 등 15개 시립체육시설은 이날부터, 시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문화시설은 25일부터 폐쇄된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소재 신천지교 교회 및 부속기관 170곳 중 163곳에 대한 폐쇄와 방역을 완료했고 시민 제보가 들어

온 신천지 관련 시설도 폐쇄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설 폐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밀접접촉 우려가 높은 신도들에 대한 관리"라며 "현재 신천지 측에서 서울시 내의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신도 명단을 제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령자들"이라고 지적하고 "법국민투쟁운동본부가 2월 29일과 3월 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설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주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물론, 신원 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불법집회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공공일자리 푼다

방역, 외부 실태조사 등 1700개 하루 6시간 근무기준 5만2000원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 도모"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170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6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방역 등 공공일자리 사업 분야 1300여명(환경정비, 보건소 사무보조, 물가·소방분야 외부 실태조사) ▲관광·문화예술 분야 300여명(명소안내, 공연장 질서요원) ▲소상공인

분야 100여명(재래시장 환경정비, 주차요원)이다.

근무 기간은 3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관광정책과(관광명소안내요원), 서울식물원(전시장 운영지원), 자치구 주민센터(방역·환경정비 분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은 5만2000원이며 부대경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근로시간과 급여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발한 1000여명을 어린이집·버스정류장·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1만곳의 집중방역에 투입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보행로처럼 '공간혁신'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이 구역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은 연내 모두 폐지된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 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 CCTV를 50대 늘려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을 올해부터 어

린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 횡단보도 67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으로 칠해 시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센터·분소 관리>

지역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	고척동
기관	주민지원센터	분소	분소	분소	주민지원센터
인력	4명	1명	1명	1명	2명
범위	서남권 총괄 (고척 제외)	강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금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구로동	고척동
비고	분소 관리총괄	해당 지역 관리 (양천 주민지원센터 업무추진 지원)			해당 지역관리

/서울시

## 소음에 잠 못드는 서남권에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 1개소, 분소 3곳 추가 총 10억4500만원 예산 투입 간담회 개최, 소음교육 업무 등

서울시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서남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분소 3곳을 신규 설치한다. 올해 총 10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10월 이호대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벨 이상 75웨벨 미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건의한 이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항공소음 영향도 75웨벨(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할 때 권장하는 단위) 이상의 소음피해대책 지역을 70웨벨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구로구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구로동과 금천구, 강서구에는 분소를 만든다. 주민지원센터와 분소는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간담회 개최와 주민 의견수렴 ▲소음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소음측정과 연구 업무 등을 맡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양천구에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피해주민 지원 및 편의 확대를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 분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단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자치구마다 각 1개 분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구로동의 경우 고척동과 갈등이 있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기존 공항소음대책지역 13.1㎢(15만6222명)에서 인근지역을 포함해 13.5㎢(25만9448명)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2016년 양천구에 개소했으나 양천·구로·강서구를 전부 전담하기 어렵고 강서구, 구로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김포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고척동 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기아車·르노삼성 신형 SUV 공공행진 성능甲 소렌토, 가격매력 XM3 08



Life

[바이오] 강스텝바이오텍 아토피줄기세포 재도전 L2



# 난치환아 돕고 대리점과 상생... 남양 키워드는 '인간존중'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남양유업

뇌전증 환아 위한 '케토니아' 제조  
미숙아·저체중아 위한 특수분유 공급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힘써  
임신기 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상생회의 개최해 애로사항 개선  
협력사 위한 자금 운용 지원도



“고객만족·인간존중·사회봉사”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인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남양유업의 기업이념이다. 남양유업은 ‘고객만족·인간존중·사회봉사’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임직원들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 업(業)의 특성에 맞게 특수분유 생산, 임신육아교실 운영, 대리점 가정 대상 출산장려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난치 환아를 위한 제품, '남양 케토니아'

남양유업은 난치성 뇌전증 환아들을 위한 제품 '케토니아'를 제조하고 있다. 케토니아는 남양유업 연구진이 연세대학교 김흥동 교수, 인제대학교 김동욱 교수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케톤 생성식이다.

뇌전증은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이 소실되거나 행동이 변화하는 등 발작 증상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케톤 생성식이요법 등이 있다.

이중 케톤 생성식이요법은 버터, 마요네즈, 참기름 등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는식이요법이다. 이식이요법 시 환아의 거부감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케토니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난치성 뇌전증의 발작 증세를 멈추고 장기적인 치료를 돕는 '케톤생성식이요법'을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남양유업은 불확실한 시장규모와 저조한 매출, 막대한 연구비와 설비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난치성 뇌전증 환아를 위해 케토니아를 개발했다. 이후 16년간 누적 106만 개를 생산해 특수 의료용도 식품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위한 '미숙아분유', 알레르기성 질환 및 설사 등으로 고통받는 아기들을 위한 'XO 닥터', 'XO 알레기' 등 특수분유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1 48번째 이어온 남양유업 임신육아교실. 2 지난해 12월 개최된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3 난치성 뇌전증 환아들을 위한 케토니아 제품. 4 남양의 '진심' 알리기 위해 오픈한 남양유업 뉴스룸. /남양유업

#### ◆ 여성 친화 기업을 위한 노력

1964년 창립 이래 분유, 우유 등 유아식을 모태로 성장해온 남양유업은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깃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양유업은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에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직 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갖췄다.

또 ▲48번째 이어온 남양분유 임신육아교실 ▲특수 의료 용도 식품 개발 및 보급 ▲특수 분유 생산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태교음악회 ▲다문화가정 후원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세종시가 주최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여성 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 대리점과의 상생, 소비자와의 소통

남양유업은 2013년 유업계 최초로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대표이사, 임직원, 전국 대리점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상생·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회의기구다. 남양유업은 상생 회의에서 대리점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분기별 논의 안건을 개선해 영업정책에 반영해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모범적인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8년 7월부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상생 결재 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지난 2019년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에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를 해소하고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양의 '진심'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스룸을 오픈하고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개선해 상생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고객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더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해 소통하고 대리점주와 선진 상생 모델을 선도하며 일등품질의 정직한 제품을 선보이는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